

논설	동북아 정세	여기 이사람!	기획	국제	국제
G20의 주요 의제인 환율전쟁에 대해서	천안함 사건 이후 동북아 정세변화에 대하여	사무연대 노조 위원장 김호정	전지구적 규모의 금융축적과 군사적패권 에 맞서는 투쟁전략	중국 자동차 파업	앤디스턴의 종말과 현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조합 문제
▶ 1~7면	▶ 7~12면	▶ 12~20면	▶ 20~25면	▶ 25~32면	▶ 32~49면

일파만파

一派萬波

ilpamanpa@gmail.com

G20 정상들, '성동격서' 전술로 지구촌을 조롱하다

기축통화인 달러야말로 인류의 재앙이다

‘성동격서(聲東擊西)’는 삼십육계 중 제6계이다. 이 계략은 거짓 행동으로 적을 헛갈리게 하여 아군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이로 인해 경비가 허술한 틈을 이용해 진격하여 승기를 잡는 것이다. 주1)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5번째 개최된 서울 G20 회의가 끝났다.

주1) 성동격서의 요체는 결국 기만이다. 더 정확히는 페이크. 페널티를 칠 때 킥커가 살짝 눈으로 오른쪽을 보면 골키퍼도 그리로 정신을 집중하게 된다. 그런 때 왼쪽으로 날아오는 공은 아주 헛방만 아니면 네트를 가르게 된다. 농구를 할 때도 공을 튀기며 몸의 중심을 옮기며 눈으로는 다른 방향을 보면서 상대의 오판을 유도하여 그 빈틈을 노린다. 권투시합에서 태권도 시합에서 자주 발을 바꾸며 어깨의 위치를 달리 하는 것도 상대로 하여금 어디로 올 것인가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페이크. 상대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짓과 기만이야말로 성동격서의 전부라 할 것이다. 만천과해(병법36계중 제1계)가 드러나지 않고 은밀함 속에 자신의 의도를 숨기는 것이라면 성동격서는 겉으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적이 아군의 의도를 잘못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왼쪽으로 가려 하면 오른쪽으로 먼저 움직이고, 달려려 하면 먼저 멈추고, 멈추려 하면 먼저 달리고, 도망치려 할 때는 달려들 것처럼 하고, 달려들려 한다면 먼저 도망칠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의도하는 바와 전혀 다른 정보를 상대에게 강요함으로써 상대의 오판을 유도하여 그 틈에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람이란 결국 감각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데, 인식은 인지로부터 비롯되고, 인지는 다시 감각으로부터 비롯된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결국 사람을 속이고자 해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보고 듣고 느끼는 일차적인 정보에서부터 혼란을 줌으로써 판단과 행동에까지 이르는 모든 메커니즘 자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게 되니, 결국은 그 의도하는 바는 완전히 가려지게 되는 것이다. 의도하는 바를 숨길 수 있으면 그만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고 말이다. 그래서 알아서가 아니라 거의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를 속이려 할 때 먼저 거짓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대의 오판을 유도하는 성동격서를 흔히 쓰게 된다.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과정이 그러하기에 거의 본능 수준으로 쓰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주2)가 그 잘난 입으로 직접적 경제효과가 20조에 이르며 유발효과를 포함하면 100조가 넘을 것이라고 뺑을 쳐댔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G20서울정상회의가 열리던 11월11일 한국시장에 거품을 잔뜩 형성했다 치고 빠진 도이치증권 등 투기세력에 의해서 단 하루만에 한국주식 시장에서 20조가 허공에 사라지고 회의가 끝나기도 무섭게 아일랜드



주2) 자칭 타칭 한국 제일의 싱크 탱크라 자부하지만, 2008년 9월 위기가 오기 3달전 창립 2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의 핵심에 있는 파생금융상품을 인류가 개발해낸 최고의 금융상품이라 극찬해 마지않았던 후안무치한 연구소,

스페인,포르투갈발 금융위기가 또다시 먹구름처럼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G20이 끝나자 이명박 정권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주3) 진보운동 진영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비난하고 나섰다. 주4)

주3) "[폐막] MB "환율전쟁에서 벗어나... 굉장한 진전" 기자회견 일문일답 "G20 아닌 나라도 성장시켜야 세계경제 균형 발전"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기자회견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 합의 결과에 대해 "(환율)전쟁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 환율문제에 대해 서울정상회의 합의가 경주회의보다 진전된 점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환율 문제도 일단은 흔히 쓰는 표현인 '전쟁'에서는 벗어났다. 이미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됐지만 그때는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는 원칙만 있었고, 이번에는 날짜를 정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한다. 그래서 다음 정상회의까지 해결한다는 원칙이 결정돼, 어쩌면 굉장한 진전이다."

▶ 우리나라가 새롭게 제안한 개발의제가 채택됐는데 주요 내용과 의미는. "G20 국가는 전체 세계의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85%를 차지하지만 G20이 20개국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170개가 넘는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도국 경제를 자립시키는 것이다. 개발의제는 G20 국가가 아닌 국가를 성장시켜 결국 세계 경제를 지속적으로 균형되게 하는 기여를 한다."

▶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가 경제변명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한 의미는. "1997년 우리가 'IMF 금융위기'를 당했고 100만명 해고에 2만개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다. 한 나라가 위기를 당하면 모두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IMF는 위기를 당한 뒤에 돕기보다는 위기를 막는 데 필요하다. (금융안전망 강화로) 세계 경제가 위기를 예방할 수 있고, 어려운 국가는 위험 전에 (IMF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불명예스럽지 않게 될 것이다."

▶ 투기성 자금이 한국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는 달러만 찍어 내면 되지만 신흥국가는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면 치명적이다. 여러 신흥국이 위험에 처해 있어 그런 경우 거시 건전성에 준하는 조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에 합의했다. 세계 경제의 원만하고 균형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할 수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한국일보》 11월 16일 기사... 정리=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주4) 민주노총 등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G20대응민중행동은 12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환율 해법을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하고 막을 내린 것과 관련, "G20 정상회의가 초라한 결과를 남기고 끝났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환율과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는 지난 경주 재무장관 회의 때 논의된 내용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며 "매우 모호하고 실효성이 불분명한 기존의 합의에서 머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상수지 불균형을 제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합의하지 못했다. 경상수지 불균형에 대한 조기경보체제 도입선에서 불합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G20 정상회담 선언문에 밝힌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는 말장난일 뿐"이라며 "현재의 미국달러 기축통화체제에서는 미국의 양적 완화조치는 그 자체가 시장결정적 환율제도와 모순된다"고 했다. 이 단체는 "G20 정상들이 국제 노동시민사회의 주된 요구에 외면과 침묵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 문제에 어떠한 전진적인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자화자찬하는 자들의 기만과 허위는 더 이상 물어서 무엇을 하리오마는,비판적 진영들의 문제의식도 2008년 이후 세계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법으로서는 한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의 구호는 주로 G20이 세계민중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는 기만적인 성격임을 지적하고 나아가 경제위기의 근원인 금융자본의 무분별한 행태에 대한 규제로 모아지는데 가능할까?

이것은 마치 1929년 대공황의 타개책으로 신화화된 케인즈 요법을 주문하는 것인데 이러한 처방은 21세기 금융자본주의시스템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한편 이번 서울 G20을 계기로 환율전쟁,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고, 중국이 급부상하여 미국 해게 모니를 대체할 것이라는 성급한 예상이 급격히 확산되는 듯한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나는 이 글을 시작하며 뜬금없이 중국 고서인 병법36계라는 책에 나오는 제6계 성동격서를 인용했는데 성동격서야말로 2008년 9월 월스트리트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각국의 자본가들과 그들의 꼭두각시인 정치인들(대표적으로 G20정상들)의 대응과 관련해서 짧으면서도 핵심을 간파할 수 있는 4자성어라 생각되어서이다.

거대금융-군수산업 자본들은 G20등을 통해서 요란스러운 몸짓을 하면서 책임전가를 꾀하였는데, 오바마는 주로 중국을 공격하고 중국은 독일,브라질등과 힘을 모아 오바마를 공격하는 형태를 띠었고 언론들은 오바마의 판정패를 선언했다. 그러자 정치사회단체들과 언론들은 이것을 부풀려 마치 미국해게모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본격적인 환율전쟁,영토전쟁으로 발전할 것 이라는 분위기를 잡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은 거대한 쇼에 불과할 뿐이다. G20에 참가한 자들의 진짜 고민은 세계적 규모의 심대한 경제적 위기 앞에서 더욱더 빈곤의 수렁텅이로 빠져들면서 하루 하루 불만을 누적시키고 있는 전세계 노동자,민중들의 저항을 어떻게 분산,고립시켜 세계자본주의 위기를 넘어서 영구지배체제를 구축할 것인가이다(이와 가장 유사한 정세는 아마도 1910년대 1차 세계대전 전야일 것이다. 물론 그 당시 자본주의 세계의 글로벌화는 지금과 비교하면 찻먹이 수준이었지만...).

지난 19세기 영국해계모니 교체기의 세계적 공황과 전쟁 속에서 지배계급들이 써먹은 수법들을 다시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배계급들은 경제위기로부터 몰려오는 공포와 상실감을 국내외적으로 희생양과 공격대상을 찾아서 책임을 전가하여 돌파하려 한다. 천안함에서 시작되어 최근 연평도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은 이러한 위기들과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즉 중동과 더불어 세계의 화약고로 등장하고 있다.

환율전쟁이니 영토전쟁이니 하는 것들은 분명 각국가 간 대립의 표출이긴 하지만은 아직은 이러한 용도가 더욱 크다. 이번 G20에서 으르렁 댔던 미국과 중국도 뒤로는 어느 정도의 원화절상에 합의한 상황이다.



즉 겉으로는 목소리 높여 치고 받지만은 물밑에서는 서로 큰 타격을 안받도록 배려해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불장난이 의도를 벗어나 큰불(국가간 전쟁)로 타오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들이 공모하여 은폐하려는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2차세계 대전 직후에 구축된 미국 주도하의 전후 세계경제질서(브레튼 우즈 시스템)가

해체되면서 창궐하기 시작한 금융화-군사화를 특징으로 하는 세계 자본주의 지배질서이다. 이 시스템은 이번 월스트리트발 세계경제위기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고한 형태로 살아남아 전지구촌을 아수라장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일파만파]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루려한다. 이번3호에서는 세계경제위기의 “악의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 경제의 실체를 파헤친다.

세계경제 파탄의 주범

월스트리트,달러,미국의 군산복합체

질문 하나. "아무리 대외부채가 많아도 절대로 파산하지 않을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 곳밖에 없다. 어느 나라인가?" 답은 당연히 '미국'이다. 달러는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언제든지 돈을 빼갈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안전하다는 신뢰를 받고 있다. 200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칠 때마다 나오는 용어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이다. 위험의 조짐이 보이기만 하면 전 세계의 돈들이 가장 안전한 미국(달러)으로 몰려드는 것이다.

왜 이런 말도 안되는 현상이 벌어지는가?

2008년 9월 마치 신자유주의만이 세상의 유일한 척도라고 지구촌을 풍미하던 세계금융의 심장, 미국 월가에서 대형사고가 터졌다. 세계를 주무르던 투자는 행 등 미국의 거대금융사들이 줄줄이 나자빠지고, GM등 제조업체까지 부도위기에 몰리면서 세계를 공포로 몰아갔다. 주52년이 지난 지금,미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른 나라 같았으면 IMF와 세계은행,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들이 국가부도위기를 위협으로 내세우며 가혹할 정도의 긴축재정을 요구하고, 자본,시장 개방을 강제하고, 부실화된 금융기관과 제조업체를 헐값으로 매각하는 등 전 나라경제가 거덜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미국은 달랐다.

무슨일이 있었냐는 듯이 달러를 툭툭 찍어 헬기로 뿌려대면서 기업들을 회생시키거나 국유화하고, 여전

여전히 달리는 미국으로 몰려들어오는 시스템이 신기할 정도로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주6)} 거기다가 서울에서 G20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6000억에 달

주5) "미국 5대 은행 모두 파산 상태"

세계최대 보험사 AIG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미국 정부의 용인 하에 미국의 대표적인 상업은행들에게 은밀히 배분된 사실이 폭로된 직후 왜 그럴 수 밖에 없는 지 속사정이 드러났다. 9일(현지시간) 미국의 《매클래치》 신문 보도(원문보기)에 따르면, 자산규모로 미국에서 영업 중인 5대 은행 모두 경제가 획기적으로 호전되지 않는 한 지난 연말 기준 재무제표상 사실상 파산을 면치 못하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은행은 이미 합계 1450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공식적으로 받았으나 끝없는 부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90일 사이에 잠재 순 손실, 49%나 급증.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시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HSBC 미국 본사, 웰스파고, JP모건체이스 등이다. 이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생상품에 연결된 잠재 순손실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5870억 달러에 달한다. 충격적인 것은 이 수치는 불과 90일 사이에 49%나 급증했다는 점이다.

이들이 파산 신고를 받지 않는 이유는 오로지 이들 손실이 장부 외 거래로 아직 정식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잠재적인 손실로 취급된다는 것 뿐이다. 엄격한 회계규칙을 적용한다면, 파생상품을 장부 외 거래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분식회계다.

게다가 파생상품은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 은행이 사실상 파산했다는 것은 '연쇄 파산'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처럼 취약한 파생상품이 전세계에 판매될 수 있었던 것은 AIG 등이 주도한 CDS(신용디폴트스왑)라는 일종의 파생 보험상품 탓이다. "파생상품 손실, 규모 알 수 없는 연쇄 파산의 뇌관" 하지만 전문가들은 AIG 등은 '보험상품'의 상식을 뒤집고, 파생상품이 부도가 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이 CDS를 마구 판매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파생상품과 CDS 자체가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파생상품의 손실 정도로 은행들의 신용을 평가하는 업체 '리스 크 분석'의 크리스토퍼 윌렌은 "CDS는 '시한폭탄'이며, 얼마나 손실이 확대될지는 경제가 얼마나 나빠지는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9일(현지시간) 씨티은행의 지주회사 씨티그룹의 주가는 파산을 의미하는 1달러를 간신히 넘긴 1.05 달러로 마감했다. 이들 은행들은 사실상 파산 상태라고 할 만큼 손실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수석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와이스는 "그들의 숫자 자체를 믿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파생상품 자체가 연방금융규제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거래됐으며, 신용평가기관들이 엉터리로 평가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은행들의 보고서만으로도 사실상 파산은 예고돼 있다. 자체적으로도 향후 예상되는 순손실은 1.2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5870억 달러에 달하는 잠재적 순손실은 이미 총당금으로 쌓아둔 497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전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실라 베어 의장은 "부실상태에 빠지더라도 국민의 혈세로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달리 대안이 없는 초대형 은행의 출현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시지탄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초대형 은행'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밀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손실에 빠진 초대형 은행은 '이미 죽은 대마'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 정부가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대마불사'의 논리에 빠져 허우적대는 동안, 워런 버핏이 지적한 대로 "미국 경제는 지난 6개월 사이에 벼랑 밑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프레시안》



러를 마구 찍어 지구촌 전반에 살포하여 자신들의 문제(경제파산, 사회균열)를 그야말로 세계화 시킨 것이다. 이거야말로 도둑이 몽둥이 들고 호령하고 있는 꼴이다. 이런 모든 현상 배후에는 미국의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인정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미국 달러는 어떻게 이런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되었는가?

달러의 비밀

사설중앙은행이 중앙은행 행세를 하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연방준비제도은행)는 일반적인 국가산하의 중앙은행이 아니다. 이것은 FRB의 태동과 운영실태를 통해 사실로도 드러나고 있다.

주6) 美 4대은행 '요즘만 같아라'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2010-05-12

'3개월 연속' 추운 날일수록 눈덩이는 불어나기 마련?' 올해 초 세계 금융시장은 부침을 거듭했지만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를 자랑하는 미국의 4대 은행은 휘파람을 불었다. 11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등 거대 은행은 올 1분기 문을 연 61일간, 그야말로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또다시 이런 시절이 없을 것이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

이는 대부분의 거래가 대형 은행을 통해 이뤄진 결과이자 월가 구제금융 후 그만큼 경쟁자가 줄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위기관리 전문가들은 이들 은행이 주식이나 채권에 대규모 투자하기보다 주로 흥정을 붙이는 거간꾼 노릇으로 수익을 올렸다고 분석했다.

은행 측도 이 기간 고객의 매매 주문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그만큼 매매가 차익을 노릴 기회가 많았던 셈이다. 은행 별로 보면 BoA의 거래수익은 26일간 1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이는 1분기 전체 수익의 43%에 달했다.

BoA는 메릴린치 투자은행 부문의 호전 등으로 3분기만에 흑자를 냈다. 또 JP모건체이스는 39일간 9천억 달러, 9일간 1억8천만 달러의 거래수익을 올렸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사기 혐의로 제소된 골드만삭스도 같은 기간 35일간 최소 1억달러의 거래수익을 냈다. 시티그룹 역시 손실을 모르는 나날을 보냈다.

영국 금융컨설팅 업체인 콜린스 스투어트의 애널리스트 윌리엄 타노나는 "지난 1분기는 정말 (대형 은행에) 순탄했다"면서 앞으로 이런 날을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돈을 찍어내는 발권기능과 통화량 조절기능, 금융기관의 감독기능 등을 주요 역할로 하고 있는 연방중앙은행이 정부기관이 아닌 사설기관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글로벌 최고의 금융산업국가인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실정이다.

FRB는 실제 주인은 골드만 삭스, 체이스, 모건스탠리, 라자드, 로스차일드가문, 록펠러가문 등 주요 거물은행과 명문가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워싱턴 DC에 있는 전화번호부를 보더라도 FRB는 관공서란에 있지 않고 민간기관란에 등재 되어 있다. ^{주7)}

현재 미국경제는 재정적자가 심각한 지경이다. 올 한 해 1조5000억 달러의 재정적자에 이르고 있다. 2008년만 해도 4590억 달러 수준이었던 재정적자가 금융위기를 맞은 작년에는 3배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재무부는 재정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이 국채들은 외국계 은행과 중국과 일본등 제조업 강국들과 오일달러로 엄청난 재정을 확보한 산유국 등 세계 주요 경제국들에 의해 소비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미 중앙은행 FRB에서 사들이고 있다.

주7) FRB 설립주주의 리스트를 적어보면

1. 로스차일드 뱅크 (유대인 로스차일드 계열자본)
2. 모시즈시프 뱅크 (이스라엘 유대인 자본)
3. 알버그 (네덜란드 왕가계열 자본)
4. 체이스 맨하튼 뱅크 (유명한 록펠러 가문 자본)
5. 골드만 삭스 뱅크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6. JP 모건 계열 뱅크 (JP 모건 손자가 만든 회사가 모건스탠리) 등등 해서 다합쳐 크게 11개 은행가들이 주주로 있다. 위의 록펠러가문은 엑슨모빌(석유회사, 세계최대 매출액 회사 사실상 인류 역사상 최대 매출액 회사)의 전신인 스탠다드 오일의 창업자

결국 미국 민간은행에 정부가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은 물 건너 간 듯 보인다. 중앙은행이 민간은행 소유이고 정부 또한 민간은행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난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의 중심인 월가의 탐욕을 감독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꼴이다.

더욱이 미 정부는 FRB에 대한 감사기능이 없다. 고삐가 있어도 돈이라는 먹이를 찾아 날아다닐 판에 고삐 자체가 없으니 제어기능이 있을 수 없다. 100년 만에 최대 경제위기라고 까지 불리던 이번 경제위기 때에도 FRB는 사상 최대 순익을 기록했다. FRB 연방준비제도은행(이하 연준)은 지난해 순이익이 521억 달러로 2008년 355억 달러에 비해 47% 증가해 1914년 설립 이후 사상최대 규모의 순익을 기록했다. 연준의 이익은 대부분 지난해 금융붕괴를 막기 위해 매입한 국채와 미 최대 주택 융자은행인 페니매와 프레디맥 채권, 모기지 채권, 기타 증권 매입을 통해서 거둬들였다. 일부는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이자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14개국 중앙은행들과의 통화 스와프로 인한 수익에서 비롯됐다.

역대 최대위기 속에서 사상 최고의 수익을 기록한 아 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대로 연준의 수익의 대부분이 금리를 낮추려고 시장에서 채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인 셈이다. 금리를 낮추는 결정기관이 연준이고 금리와 채권은 반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 것을 미리 알기만 하면 무조건 채권구입이 최고의 수익처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연준의 수익이 연준의 실제 주인인 민간은행과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가고 일부는 자산으로 다시 귀속되어 연준의 몸집을 키우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준의 주체 중에 최대은행인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주주구성은 체이스은행이 32.35%로 최대주주이고 씨티은행이 20.51%로 이들 두 은행이 사실상 독점소유하고 있다. 작년 최고 순이익도 뉴욕 연준에서 이뤄낸 수익이 최대비율을 차지했다.

정부통제가 미치지 않는 중앙은행 FRB의 태동 비밀

이 같은 모순적인 행태의 미 중앙은행시스템이 정부의 영향력 밖에 있는 원인은 연준의 내부구조와 태동의 비밀을 통해 드러난다. 연준은 발권권한과 금리조절기능 등 주요결정을 결정하는 7명의 이사가 14년 단임제 임기를 가지고 있다. 또 임기시한을 이사들마다 각각 2년의 차등을 뒤서 대통령이 권한 통제를 위한 해임을 하려 해도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구조다.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내부에서 추천한 이사가 대통령에 의해 임명 거부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이 같은 인사권 독립보장이 정부적 기능을 가지면서도 민간은행인 연준을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게(말이 자유롭게지 제멋대로가 맞겠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태동의 배경을 보면 연준의 정치적 전략이 드러나고 있다.

1907년 당시 JP모건이란 자본가는 은행이 실제 보유 자산보다 10배 가량의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부분지급 준비금 제도의 폐해를 들어 니커보커 은행의 파산소문을 퍼뜨린다. 고객들의 급격한 인출사태 ‘뱅크런’으로 인해 니커보커은행은 결국 파산하게 되고 이 같은 현상이 미 전역에 퍼지면서 대공황이 시작된다. 이런 혼란을 틈타 JP모건은 지역은행들의 위기를 통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면서 의회는 이를 받아들인다. 의회는 이를 위해 ‘국가 화폐위원회’를 신설하고 JP모건의 추종세력들로 구성된 ‘화폐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만든다. 이 법안은 1913년 12월에 정식 통과되었는데 이 통과 과정이 의문투성이다.

모든 의원들이 휴가를 떠난 12월 23일 일부 의원들에 의해 날치기 통과되고 헌법개정안은 3분의2이상의 주(州)의 찬성을 얻어야 함에도 2개 주만의 찬성으로 변칙 통과 된다. 또한 자기 세력들이 투자해 세운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은행이 정부에 돈을 떼일 것을 고려해 최초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소득세를 신설해 징수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이렇게 해서 태동한 연준은 1920년대에 엄청난 돈을 풀어 은행들의 대출을 자

유롭게 했다. 미국경제는 호황을 맞게 되고 주식은 폭등을 한다. 여기에 주식은 10%의 돈만 있으면 90%까지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레버리지 주8)

주8) 레버리지란?

레버리지(Leverage)란 보통 자본 또는 운용자산에 대한 부채비율을 의미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운용자산에 대한 부채비율을 나타낸다. 운용자산 100달러를 가진 헤지펀드가 900달러를 차입해 선물시장이나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 1,000달러를 투자한다고 가정하자.

이 때 레버리지는 $1,000 / 100 \times 100 = 1,000\%$ 가 된다.

최근 헤지펀드들이 이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 선물과 파생금융상품에 엄청난 규모로 투자했다 실패해 일반에 알려진 금융용어다. 헤지펀드들은 보통 레버리지를 1,000 ~ 2,000%정도로 운용한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극도로 위험을 선호하는 헤지펀드들은 5,000 ~ 1만%까지 레버리지효과를 이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최근 도산위기에 처한 롬트 캐피탈 메지지먼트(LTCM)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 헤지펀드는 최고 1만%까지 레버리지효과를 높여 고수익을 올렸으나 러시아 모라토리엄(대외채무 지불유예)이라는 변수를 예측지 못해 파산장경에 이르렀다.

LTCM의 운용자산은 800억달러 정도였으나 레버리지효과를 이용, 금융시장에서 1조 2,000억달러를 굴렸었다.

그러나 LTCM은 러시아 사태 이후 1,200억달러의 손실을 입고 두손 들고 말았다. (네이트 지식검색중에서)

낮은 이자의 부채를 지렛대 삼아 고수익 투자를 하는 것을 ‘레버리지 투자’라고 합니다. 2003년 시작된 저금리 기조는 빚을 내서 투자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레버리지에 대한 관심을 사회적으로 크게 키웠습니다. 금기가 ‘빚돈 자산’이라는 믿음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가계 대출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보통 GDP 대비 가계부채의 합이 80% 이상일 경우 가계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GDP의 83.9%를 기록하고 있으니 그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자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공포심에 휩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 얻은 빚으로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마구 오를 때는 누구나 흥분합니다. 반대로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보다 더 심한 강도의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투자자들의 마음을 찰스 킨들버그는 ‘출입문 폐쇄 공포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육중한 출입문이 철커덕 닫혀버리기 전에 빠져나가야 한다는 공포심을 가지면서 투매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처음부터 매우 나쁜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펀드 가격이 대세 상승 분위기일 때는 나만 빼고 모두 부자가 되는 것 같은 허탈함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채무 이행 능력(소득·자산·신용 수준 등)을 따져보지 않고 문지마 투자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투자인데도 매각해서 차익실현이 이뤄지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를 때는 팔지 못하다가 자산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공포심을 갖게 되고, 그 공포심을 이겨내지 못해 손해를 보며 투매해 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공포심을 이겨내고 기다리고 싶어도 더는 그럴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자산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융회사에서 담보물의 가치와 고객의 신용등급을 다시 평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금리의 빚으로 고금리의 투자를 하겠다는 레버리지 투자는 언뜻 들으면 돈을 쉽게 버는 달콤한 투자비법입니다. 내 돈이 없어도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해 큰돈을 벌 수 있다니,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달콤한 ‘공짜 돈’의 유혹은 결국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흥분과 공포심을 오락가락하면서 평범한 투자자들을 바보로 만들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빚에 대해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인터넷 블로그에서)

를 키워 놓았다. 당시 주식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돈의 힘에 의해 누구나 돈을 버는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다. 브로커에게 돈을 빌릴 때 회수 요청을 받으면 24시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는 문구를 사람들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연준의 기획 하에 1924년 은행들은 브로커들에게 일제히 차입액 회수 명령을 내리고 채무자들은 이 돈을 갚기 위해 보유주식과 자산을 일제히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대폭락에 휩싸인다. 이는 대공황의 전조가 되었다. 이는 이번 금융위기와 흡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린스펀효과(Greenspan Effect)라고 하는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풀어 신용이 낮은 구매자에게도 주택융자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누구나 집을 사게 했다. 이후 집값과 주식시장 상승이 대규모로 대출한 돈의 힘에 의해 상승했다. 집값이 정점에 이르자 연준은 집값 거품과 인플레이를 우려하며 금리를 인상해 결과적으로 서브프라임 발 금융위기를 맞게 된다. 이 두 시기의 환란과정에서 은행자본



가들은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헐값에 인수하고 부도난 자산들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몸집 키우기를 시도한다. 과거 대공황 당시에는 체이스 맨하탄 뱅크의 실 소유주인 록펠러 가문은 주식을 폭락하기 전 내다팔아 오히려 저가에 주식매수에 나서 자산 증식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은행에 차압된 부실 알짜기업들을 사유화 내지는 헐값에 인수 높은 가격에 재 매각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극대화 시켰다.

이번 금융위기 기간에도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투자은행의 절대 강자로 사상 최대 순익을 올렸다. 위기로 매릴린치나 리먼브라더스 같은 경쟁업체가 인수합병 등을 통해 제거된 것이다. (일파만파 4호에서 계속됩니다)

동북아 정세

천안함사건 이후 동북아 정세변화에 대하여

천안함 침몰사태를 둘러싼 공방

천안함 침몰사태가 벌어진 지 벌써 6개월이 흘렀다. 그런데 아직까지 군과 정부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여론, 운동권까지 3월 26일 벌어진 침몰사태의 진실공방에 빠져 있다. 그러는 사이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은 천안함 사태 이후 동북아시아 주도권을 두고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었고 그 대결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향후 이 승부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듯 하다.

천안함 사건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공방이 있다. 북한이 격침시켰는가, 아니면 천안함 자체의 문제로 인해 침몰되었던가, 아니면 제3의 세력이 격침시켰는가

이다. 북한이 격침시켰다는 쪽도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북한이 격침시켰다고 주장하는 쪽은 한국정부, 미국, 일본이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암묵적으로는 북한이 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운동권의 일부는 북한이 격침시키지 않고 미국과 한국의 음모론 내지는 자체 문제로 인한 침몰쪽으로 기울어있다. 문제는 이러한 논쟁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논쟁은 쉽사리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하면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그리고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은 좀 더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사건의 결과가 밝혀지곤 한다. 아예 안 밝혀지는 것 또한 많고... 물론 이러한 논쟁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30%를 상회한다. 이는 분명 이 논쟁의 중요한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런 공방전이 누가 격침시켰는가 그렇지 않은가에만 머물렀을 때는 일정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어느 정도 정부나 미국 쪽에 대한 의구심이 대중들에게 생겨났다면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 결과물이 대중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던간에 사건을 조작(?)했거나 또는 그 일을 호도하여 반사적 이익을 얻는 세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정치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중을 대변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건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종종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건들이 있다. 이럴 경우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피해자 주변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 누가 가장 이익을 보는가라는 것을 추측해 범인을 역으로 유추해내기도 한다. 물론 이해관계가 없는 우발적 사건도 있다. 아무도 격침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이때 우리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다시 사건을 되짚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천안함 이후 처음 얼마간의 미국의 행보는 매우 중립

적이고 신중했으나 한 달이 지나고 난 후 북한의 격침 사실을 기정사실화 한 후 미국의 행보는 매우 빨랐다. 북한에 대한 제제,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제, 남한과의 공동 군사훈련, 서해로의 핵항모 동원훈련 엄포,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란에 대한 적극적 제제에 한국, 일본 동참시키기 등등이었다.

그 동안 동북아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는 핵무장을 하려는 북한에 대한 효과적 통제였다. 이를 위해 과거 분단독일의 통일과정에 있었던 2+4회담을 본따 동북아 주변국 6자 회담이 만들어 졌으나 그 주도권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천안함 사태 이후에 유엔 안보리를 통한 북한 제제 과정에서 그 누구도 명분 있는 효과적 반대하지 못하는 것과 이후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북한 제제의 명분과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드디어 동북아 정세의 주도권을 중국으로부터 다시 찾아오게 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천안함 이전에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이전 등을 구호로 내건 '하토야마' 내각이 들어섰고, 이후 일본과 미국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동아시아 특히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남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미국 군사력지배의 핵심 기지인 것이다. 이것을 일본이 철수하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미국을 동아시아에서 밀어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런 국면에 때맞추어 일어난 천안함 사태는 미국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이후 하토야마 내각은 사퇴 당했고 오키나와 기지이전 문제는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다. 미국측으로서는 한 방에 동아시아에서 닥친 중요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면서 오히려 천안함 이전보다 더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이 더 강해졌다.

이후 동북아 정세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편이고 한국 미국 일본이 다른 한편이 되어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현재의 동북아 정세는 '천안함 이전과 이후'로 표현되듯이 이전의 평화 속에서의 조화를 강조한 시기와는 다른 '대립

이렇게 중국이 천안함 사태 이후 미국과 대립적 행보를 보이는 사이 동북아의 중요한 한 축인 일본은 재빨리 이러한 동북아 갈등 구조를 이용 재무장의 시동을 걸었다. 8월말 일본의 중요한 군사전략 조언 집단이 일본의 기존 군사력배치 기본개념인, ‘군사력전국균형배치’를 오키나와와 난세이 제도를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본군사력의 집중을 남중국해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36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의 잠수함 전력을 강화기로 했다. 이유야 지난 4월 중국이 대양해군을 지향한다는 발표를 한 후 이에 대해 대응책이라고 했지만 현재 일본의 잠수함은 중국에 비해 64척 대 18척으로 숫적으로는 열세인 것처럼 보이거나 전력상으로는 최신형으로 전혀 중국에 밀리지 않는다는게 군사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일본으로서는 재무장을 위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센카쿠 사건은 이러한 명분 축적용으로는 제격이었을 것이다. 센카쿠 사건 이후 일본의 우익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일본 재무장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가 이전과는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마치 울고 싶었는데 뺨 때려주는 격이다. 일본에게 있어서 남중국해는 일본의 젖줄이다. 일본 에너지의 대부분이 남지나해를 지나서 들어온다. 남중국해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젖줄이 끊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중국도 대양해군을 천명하면서 남태평양 제해권에 도전한 것이다. 기존의 제해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자 그 틈을 이용해 미국에게 '남태평양에서 미국 군사력의 보조로서 일본이 일익을 담당할'



담당할 수 있다는 소위 '일본 역할론'을 주장하면서 미국에게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군사적 팽창이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더 자본증식이 어려워지는 일본자본에게도 군수산업이야말로 증식의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앞으로도 일본은 끝없이 시도하고 시도할 것이다. 플라자합의가 일본의 재무장 허용의 제1탄이라면 천안함 사태는 2탄이 될 것이다.

지금은 중국에게 밀린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여론의 힘을 얻는 성과를 낸 일본내의 자본은 계속 주판알을 튕기며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일본이 군사적으로 상대할 대상이 세계 제2-3위를 다투는 군사력을 가진 중국이라면 그에 맞서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어마어마 할 것이고 그 군수시장 역시 엄청날 것이다. 일본내의 자본이 그 시장을 놓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상상해보자! 일본의 장기적 군사목적인 항모전단을 꾸리려면 일단 항모를 건조해야 하고 항모를 지원할 구축함 순양함 이지스함을 건조해야 할 뿐아니라, 그 항모에 탑재할 함재기 수십여 대와 그에 필요한 지원물자 등등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기위해 또한 엄청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본에게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인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역사적으로 자본재생산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더없이 확대되는 군사력 증강은 결국 전쟁을 가져오고야 만다는 사실이다.

전쟁을 통한 해결! 30년 대공황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자본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수십 년간의 생산력과잉 때문에 발생한 자본증식의 위기를 단 한번에 날려 버릴 수 있는 기회를... 그 이후 이십여 년간의 호황을.. 그들은 결코 그 달콤함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 역시 피아오위따오(釣魚島)에서 -센카쿠열도를 중국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 영토분쟁이 필요한 것은 일본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국내에서 정치적 불안이 계속 증폭되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정치적 개혁이 필요할 터이고 이를 둘러싸고 내부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이를 내부에서 봉합하고 억누르기 위해서는 외부

에서의 일정한 압력이 필요하다. 피아오위따오에서의 일본과의 영토분쟁은 국내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행동을 제압하는데 필요하다. 센카쿠 이전부터 중국공산당 내부에서도 일정 정도의 정치적 민주화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 예로 당 공식조직이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되었던 중앙당교 교수의 정치개혁 필요성 주장 논설과, 원자바오 수상의 선전(深圳) 발언 등이 있다.

이번 일본과의 영토분쟁 과정에서 이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중국 선장은 일본과 맞서 싸운 민족적 영웅이 되었고, 중화제국을 수호하려는 민족주의 관제 데모가 중국거리를 휩쓸었다. 인터넷에서도 난리가 났다. 중국의 내부의 민주화 요구를 센카쿠 사태를 이용하여 '중화민족주의'로 바꾸는데 현재로는 성공했다.



하지만 다른 한 측면으로는 이 사태가 중국당국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의 실례들을 보여준다. 단편적인 예 하나를 보자. 중국 중서부 거점도시 중 하나에서 일백 명이 반일 시위를 한다고 당국에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그 백배인 일만명이 시위를 했다고 한다. 인터넷과 휴대폰 등을 통한 선전을 보고 이들이 모이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는 중국의 시위가 당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만일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다면 중국당국은 이전 천안문처럼 철통 같이 수비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반일 민족주의 시위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서라도 중국당국은 민족주의 시위를 나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기도 하다.

이번 센카쿠 열도 사건에서 중국은 자원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사용했다. 이는 앞으로 동북아정세를 바라보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의 대륙진출 과정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와 현재 천안함 이후 벌어지는 동북아 정세는 매우 유사하다. -일본의 영일동맹과 미국과의 카스라 테프트 밀약 등- 러일 전쟁의 승리 이면에는 러시아와 중국 등의 대륙세력을 견제하려는 영·미의 절대적 지지가 있었기에 승리했다 -전비의 60% 영국에서 지원, 군함건조 지원, 러시아 극동함대의 수에즈운하 이용 금지, 영국령 치하의 항구에서 러시아 군함 군수지원 금지 등등-. 이후 영·미·일 동맹은 태평양전쟁 때까지 약 40년 가까이 지속된다. 이후 태평양전쟁은 결국 일본의 인도네시아의 석유와 인도차이나의 고무 등 자원을 장악하기 위한 자원쟁탈전의 성격으로 변하면서 인팔에서는 영국과 필리핀에서 미국과의 전쟁을 시작한다. 이는 앞으로 동북아 상황의 전개를 예측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즉 자본간에는 서로 어찌하지 못하는 공생관계, 예를 들면 현재 중국과 미국의 관계, 즉 ‘동아시아 달러 환류시스템’처럼 서로 공생할 수 밖에 없는 관계에 의해 계속 타협하면서 가지만,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자본증식의 한계에 봉착한 시기- 서로가 충돌한다. 중국과 일본의 자원전쟁은 그런 의미에서 자본간의 분열지점이 어디 일지를 시사한다.

중국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끝없이 불안해 한다. 그래서 대체로 이란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에너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아프리카에서의 자원전쟁은 중국의 실패로 돌아간 듯 보인다. 러시아와는 육로로 파이프라인 완성해 동맹을 강화하고 .. 이란에게는 북을 통해 핵지원을 하고 중동에서의 미국의 아킬레스건으로서의 이란의 지위를 굳건히 하도록 지원하는 속에서 안정적 원유 확보를 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렇게 천안함사태 이전,이후에 동북아를 놓고 거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국내에서의 반MB



가 어찌고 저찌고에 머물고 있을 때 동북아를 둘러싸고 각각의 이해를 가진 자본가들이 혈투를 벌이고 있고, 이는 바로 한국 더 나아가 동북아 인민들의 생사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 봐야 할 지점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지점인 것이다

이제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자본간의 대립 결과는 결국 동북아시아에서의 군비확장 게임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는 동북아에 전운을 감돌게 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러한 군비 확장 게임은 언젠가는 우연 혹은 필연적인 극단적 대립을 낳게 된다. 그것은 바로 전쟁이다. 전쟁의 참혹함은 모두 너무 잘 알고 있다. 수많은 인민들의 목숨과 남은 노동자민중들의 비참한 생활을.. 지금도 TV만 틀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민중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지, 또한 살아남은 노동자민중들은 기아와 질병,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실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남의 일들이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전쟁의 위험을 노동자민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전쟁 반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중립지대화”를 우리는 외쳐야 한다.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다. 전쟁 때문에 야만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달려있다. 전쟁을 막아내는 것은 한반도내의 노동자민중의 힘



만으로는 부족하다. 동아시아 노동자민중들의 연대를 통해서만이 자본의 전쟁놀음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소위 진보정당이라는 대중 정당들과 노동자민중의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민중들과 전세계 각국의 모든 “전쟁반대”를 외칠 수 있는 정당, 단체들과 연대해야 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이제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되어 가고 있다. 전쟁 반대!!!

여기 이사람!

전국사무연대노조 위원장 김 호 정



기존 산별연맹에서는 ‘소홀해왔다’고 평가 받는, 비정규.영세.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임무’로 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조직들이 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는 부산일반노조를 비롯해 각 지역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일반노조 형태로 조직되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지역일반노조’와는 다른 특이한 형태로 기존 연맹(사무금융연맹)에 소속되어 그러나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사무연대노조 위원장을 만나봤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듣고자 했다.

한 때는 노조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까지 얘기됐던 일반노조운동. 주요 관심사는 현재 우리 운동이 막혀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의 화두였다. 관련한 민감한 부분까지 깊이 들어가봤다. 얘기과정에서 나온 말들의 행간을 들여다보는 것도 소중한 활동의 경험과 성찰을 흡수하는 것이리라.

지역의 활동가 한 명도 함께 간담회 방식으로 얘기를 나누었다.(편의상 ▷, 김, ►로 표시)

▷「일파만파」를 보고 좋았던 기사가 있었나?

김: 스케치하듯 봐서 가물가물한 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 정치적 입장이나 방향에 대해서 인상이 남는다. 계급적 관점에서 그런 투쟁들을 전면화해야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느낌이 좋았다. 래디컬하다...?(웃음) 세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

▷래디컬하다는 표현은 좋은 쪽으로 해석하겠다(웃음)

▷금속 관련한 것은 논쟁적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 금속에 관한 부분 어떤 것에서요?

▷금속산별 끝났다. 애초 제기하고 주장했던 측면에 비추어 산별노조가 무용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이냐 등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 기업별 노조로 가야 한다는 것으로도 비칠 수 있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예컨대 민주노총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정의헌 선배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분 공약중의 하나가 전국 단일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 그 공약을 논리적으로만 확대해보면 기존 연맹체계를 깨자는 얘기도 성립되는데, 기존 산별과 연맹 그리고 동반출마한

임원들의 반응이 없는 것이 의아하다. 이것과 비슷하다. 그만큼 금속산별 부분에 대한 언급은 기존 산별이나 연맹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 금속산별도 그렇고 공공도 그렇고, 사무금융연맹 같은 곳은 (산별노조를)하려다 못했는데, 어쨌든 산별이 잘 안되고 있다. 정착되는 것도 미지수일 것 같고 파위를 내는 조직질서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속산별이든 공공산별이든 추진하려는 관성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조직들이 다른 조직형태로 가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이미 조직된 민주노총 사업장은 전체 노동자 조직 비율에 비하면 5% 정도밖에 안 된다. 한국노총 합쳐서 10% 정도면, 규모 있는 사업장은 500인 이상은 거의 다 조직됐고 300인 이상은 상당히 조직돼 있고, 그 조직들이 관성이 너무 세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논의를 해도 의미가 없다. 오히려 속앓이를 하게끔 놔둬야 되고, 아직 미조직된 영역이 더 많고 조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본다. 미조직 비정규직 관련해서..... 물론 비정규직 조직하기 어렵다. 해보니까.... 일단 해고 되기도 쉽고 투쟁을 오래하니까 어려워진다. 돈이 없으니까 조합원들이 바로 생계현장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역적 방식으로 조직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조직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데는 매트ropolis 유니온 같은 경우로, 이것이 어떤 이름으로 표현되든 지역사회운동노조든 지역노조든. 서울같은 경우는 25개 구가 있다. 서울지역에 그렇게 하려는 조직들이 공공노조 서경서비스지부나 일반노조나 사무연대노조나 최근에 만든 희망연대노조들이 지금 당장 모이면, 조금 노력하면 한 오천 조직이 될 것이다. 이런 조직들이 먼저 관성을 붙여 가서, 지역 중심 그리고 사회운동적 요소 그리고 변혁적 요소까지 내다보면서 지역적 방식으로 조직해 나가다 보면 이후 이 조직이 일만, 이만 이후 10만 대오 정도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전에 조직돼있던 산별연맹은 계속 업종이나 산업으로 고립화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경향이 생기지 않겠냐 그

렇게 보고 있다.

자연스럽게 영향이 있지 않겠냐 싶다.

▷노조 사이트를 구경해봤다. 산별노조인데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일반노조와 비슷하다. 일반노조를 보면 어떤 데는 금속중심, 어떤 곳은 공공중심 이런식으로 지역적 특성과 역사에 따라 다르던데 어떤 사업장으로 구성돼 있나?

김: 신협이 8개, 농협중앙회 비정규직, 신용보증기금 비정규직, 외국기업으로 한국화이자동물약품, 베링거 인겔하임동물약품이 있다. 세계태권도연맹, 유니레버, 가락시장의 축산물도매센터, 개별가입자들이 가입해있는 자유로운 공동체지부 등 주로 사무직, 소금 용 이런 쪽으로 주력업체로 조직해왔다. 10년 동안 해오는 과정에서 까먹은 조직도 많고 왔다 나가기도 하고.... 지금 조합원수는 500여명이다. 조합비 내는 숫자가 400명 정도이고, 지부는 대략 20개 지부 안팎이다. 상근자는 4명이다. 다 노조비로 하고 있다.

▷ 사업장에서의 노조전임자 현황은?

김: 전임은 몇 군데 있다. 지부 규모가 작으니까 단협을 통해서 조합활동을 원만히 해왔는데, 전임을 특별히 탄 데는 농협중앙회, 유니레버 등 2~3군데 정도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준전임이다.

▷ 이번에 (타임오프로) 타격이 있을터인데....

김: 크게 영향은 없다. 그런데 농협중앙회나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타격을 제대로 맞았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노조가 3군데인데 하나는 한국노총 소속의 1만 4천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고, 하나는 사무금융연맹 축협중앙회지부에 2천명 정도 있다. (타임오프로)전체 3만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전체 현 전임자가 50명 정도로 환산되는 데, 법적으로 15명이라고 할 때 한국노총 이 13명, 민주노총 파견간부 1명, 우리는 14시간.... 1년에. 그러니 엄두가 안 나는 상태이다. 지부장도 계약해지로 해고 상태이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420시간이다.

비정규조직은 어제 한 사업장 교섭했는데 10명 짜리 사업장인데 타임오프 한 시간 달라니까 죽어도 안 된다고 한다. (여기서 모두 허탈한 웃음이 질 수밖에 없었다)



타임오프 지랄맞다. 예전에는 단협가지고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 회의도 다니고 했다.

특히 비정규 사업장은 전임자 있는 곳 드물다. 우리의 경우 특히 농협중앙회의 경우는 노조 만들기도 힘들고 전임활동도 어렵다.

▷대부분 비정규사업장인가요?

김: 꼭 그렇지 않은 않다. 우리의 경우 비정규직이 갈수록 줄어든다. 들어올 땐 비정규직이지만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조그만 사업장이라도 비정규 조합원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끝까지 해서 완전한 정규직이 아니어도 어쨌든 비정규직 비율은 줄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노조의 딜레마가 농협중앙회다. 직접고용 오천명 간접고용 오천 명에서 만명되는데, 조직화가 안된다. 전임자.사무실 있을 때도 안되더라.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규직노조와 합의해서 무기계약직 형태로 발령 내고 우리한테 통보하는 식이다. 힘이 없으니까....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하려는데 딜레마 중의 하나로 마음이 안 좋다. 갑갑하다.

비정규직들이 체념해있는 상태고 오히려 정규직 노조에 기대려고 하는 정서적 관점이 높다. 한 사업장에 직영이 50여명이라면 정규직 30명에 무기계약직 15명 정도 되고 다섯 명이 비정규직인데 다음 봄에 별정직 채용시험을 무기계약직이 될 것을 기대한다.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도 그게 되고 싶어 그것에 기대다. 그러면서 비정규노조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누가 탈퇴하라 하지 않아도 탈퇴한다.

▷지부가 20여 개이면 교섭이 많을 것 같다. 안정화된 노조의 경우 괜찮지만 중소.영세.비정규 사업장의 경우 힘이 없어서 발생하는 일이 많을 텐데, 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김: 해결사 방식이다.(웃음) 일년 내내 교섭이다. 일주일에 두 세번 교섭은 기본이다.

▷전체 조직화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예컨대, 아직까지 전략적으로 면밀한 조직화한 사례는 별로 보지 못했다. 중장기적 선전 등을 제외하고는 그렇다. 또 (사무연대노조의 경우)비정규 중심이어서 소속 연맹과 큰 갈등은 없겠지만 최근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노조 서경서비스지부의 경우처럼, 타연맹 예컨대 화섬이라든가 이런 경우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겹쳐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김: 일반노협 의장이나 부산일반노조 등과 토의해보니 비슷하더라. 지역노조운동 10년을 했는데, 교육하고 지역에서 연대도 구축하고 했는데 결국은 사업장만 작지 지금하고 있는 다른 산별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 노조는 지역노조라고 하는데 결국은 금속산별이나 공공산별이나 굵직한 산별이나 일반노조의 산별이나 사무연대노조나 별만 다르지 않더라. 다만 '틈새시장'을 공략하려 했다. 중소영세 비정규직을 다른 큰 산별들이 하지 않을 때 조직하는데 있어 노하우가 생겼다. 일반노조 10년을 평가한다고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거죠. 우리가 지역연대 한다고 해서 해봤는데 결국 기업별 조그만 규모를 모아놓고 하다보니 그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다만 성과라고 한다면 규모가 좀 커졌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무연대노조도 약 10년해서 5백으로 늘렸는데, 일반노조 10년 모아갖고 몇 명 모을 수 있을까요? 많이 돼야 만 명 되겠죠. 사무연대노조 몇 천명 되겠죠... 이런거를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비슷하다. 그래서 '야! 이건 중소영세 비정규직화 하는데 있어서 쪽수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진다.

그럼 뭐냐? 지향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지향을 분명히 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직할거냐. 그방식은 여전히 지역에서 업종이나 산업이나 특성을 두지 않고 지역중심으로 조직하는 것이 맞겠다. 다만 지향은 생산의 영역과 재생산의 영역을 아우르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주의에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대안들

을 찾고 제시를 하면서 변혁적으로 가는 것이어야지 않겠나 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반노조나 저나 비슷하다. 서울에서는 서경서비스노조도 규모가 천 오백 된다. 우리와 똑같다. 대학청소용역.시설관리.미화원 이런데 조직하는데 똑같이 얘기한다. 규모는 커지겠지만 전망과 조직적 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측면이 있다.

최근 사무연대노조 간부들과 얘기하는데 비정규영세사업장 조직하고 해봤지만 비정규직 조직화라고 흔쾌히 성사시키거나 이겼다고 한 사례가 많지 않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서비스노조 서경지부나 사무연대노조, 희망연대노조, 서울지역일반노조가 있는데 매트ropolis유니온이든, 지역사회운동노조든 그런 방식들로해서, 주로 조직 대상은 미조직.비정규직이겠쥬. 다만 지역에 근거해서 조직화 사업도 같이하고 변혁적 전망도 내고 하면서 그러면서 노동자운동을 1번으로 세우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중의 하나가 배치가 돼야지, 지금 기존의 '양날개운동'(산별노조-진보정당)처럼 활동해 가면 노조는 노조대로 분리되고 정치는 정치대로 기득권 정치에 포섭되는 방식으로 가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이쥬. 지역별로 탄탄하게 뿌리내리고 있고 변혁적 전망을 가진 노동자운동이 살아있다고 하면 정치는 얼마든지 컨트롤하고 관장 가능하다고 본다. 필요에 따라 지자체 후보도 낼 수 있는 거고 국회의원도 낼 수 있는 거고 다른 정치적 대안들을 가지고 변혁적 지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요즘 운동이 그 딜레마에 빠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

▷ 몇 몇 일반노조 방식은 사회운동과 관련한 조합원 조직 방식을 '의무할당' 방식으로 하는 사례가 주요 방식으로 보였는데, 당사자들은 담보하고 있다고 본다. 개별조합원 모임도 한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것이다.

그럼 뭐가 어디서 실패하고 있는 건지.... 사회운동을 해야한다는데 기존 노조운동에 이식시키거나 혹은 의무 할당식으로 한다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김: 저는 기존 얘기 했듯이 지금 금속산별 못하고 있으니 산별 해체해야 하지 않는가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 영향력 갖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요건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산별형식 논리 등. 조금 더 놔두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방향으로 우회할 것이라 보는데..... 다만 새로운 프레임으로 관성을 만들어 내는 일은 얘기했던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본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큰 지향 속에서 조직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다.

그 의미에서 서울본부가 중요하다. 새로운 조직형태를 가지려는데 민주노총과 기존 산별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지역을 담보하고 있는 단위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 그런 의미에서 서경지부.서울일반노조.희망연대노조가 합칠 수는 없는가?

김: 당장 물리적으로 합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다. 지금 고민하는 것은 낮은 수준이라도 의미와 지향을 같이 하는 연대지서를 같이 하는 것이다. 최근 제안하려 하고 있다. 지역사회운동노조든 지역노조든 매트ropolis유니온이든 내용은 비슷비슷하다. '지역적으로 조직하여 규모 있게 가자. 생산과 재생산의 영역에서 대안노조가 되자. 양날개론을 넘어서자' 등 각 조직의 지향이 비슷하다.

그렇다고 사무나 서경에서 소속 연맹을 나올 수 없다. 예산문제도 있고. 당장에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논의가 되려면 논의를 붙여서 공동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향을 갖는 연단체 단위를 만들어서 몇 년간 공조과정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최소 2~3년?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심동희 한국화이자동물약품지부장, 박조수 연맹 수석부위원장,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김호정 전국사무연대노조 위원장.

내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장의 형식적 통합은 무의미하고 불가능하다.

▷ 틈새시장 말씀하셨는데 틈새시장이 커 보이면 연맹에서도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원하지 않게 갈등이 생기고 기득권 싸움처럼 될 것인데 그러면 불필요한 에너지의 소진, 조합원들이 좌절하는 사례가 생길 것이다. 최근의 서울본부 사례가 그런 것 같다. 그것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김: 서울은 ...서울지역본부에서 이런 방식의 조직화 방식이 결의가 되면 충돌은 원만하게 비켜갈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화재 같은 경우가 생기면 사무연맹에서 조직하라 하고....중소사업장이나 '사무직 일반'의 소규모 단위에 대해서는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는데 우리가 조직하면 된다.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조직할 수 있는 대상들 엄청 많다. 기본 1만 정도 되면 엄청난 파워가 나올 것이라 본다. 서울 25개 구에서 25개 지부가 조직되는 건데, 그 규모로 교통정리를 해나가고 연대질서가 새롭게 꾸려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

▷ 구체적인 플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와 논쟁이 필요할 거라 본다. 의외로 생각보다는 논쟁이 적다.. 일반노조들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크지 못하는 것 같다. 헌신성과 실력에 비해 대략 1천 규모에서는 답보한다. 비약적 발전은 보지 못하고 있다.

▶ 어쨌든 산별 중 금속만 놓고 본다면 2006년에 비로소 산별체계의 형식이 갖추어진 것이고 산별의 결정적 특성이라면 산별협약이 되어서 적용 해야 하는데 그건 안되었다. 산별해체론 얘기가 있지만 그건 이미 해체된 거나 다름없다. 해체 하자는 게 아니고 금속산별의 경우 산별협약을 사실상 한 번도 맺어진 적이 없다. 금속산별은 단지 노동조합측에서 선포만 했을 뿐이지 사실 산별노조는 건설되지 않은 것이다. 그걸 가지고 내용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연맹은 가능하겠느냐 했을 때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끝난 상황이다. (무의미한)얘기를 끝내라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진보정당이 2008년에 갈라지는데 그때까지는 양날개론이 파워가 있었다. 왜냐하면 모

든 이유를 산별이 안 되는 것에서, 기업별노조의 한계 때문이라는 주장과 함께 정치세력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사람들은 일단 맞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온 것인데 이것들을 누구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노조 운동하는 사람들을 힘들었던 것이고, 이 틈새에서 노력해봤자 힘도 안 실리고 그렇게 오래 고생하며 온 거다. 그런데 썩어도 준치라고 (산별노조는)망했는데도 사실상 속도가 미팅하게 꺼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른바 양날개론이 약화됐고 그런 의미에서 지역적으로 가야 한다. 조직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변혁적 내용과 전망을 가져야 한다.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그때와 다르게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와 있는데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하나는 변혁적 전망이 도 대체 뭐냐? 이 문제를 봤을 때 사회적 의제라든지 사회적 노동운동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고 날카로움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 2008년 월스트리트발 경제위기 이후 세계는 격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어떻게 잘되는 이런 수준에서의 연대고..... 찌질이 연대라고 표현을 쓸 때도 있는데 비하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망이 없는 연대, 어디 깨지면 몸 대주려 가주는 것이 반복되는 것에 그치는 연대 등의 반복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상적 내용이라는 것은 추상적 사상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모든 투쟁은 개량투쟁이지만 그것이 어떤 전망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개량적 영역이 굉장히 혁명의 영역으로 가는데 있어 징검다리,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백날 해 봤자 타락한 운동 성취하면 할수록 자기 배불리지면서 다 멀어지는 그런 문제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 지역에 있는 노동조합운동만이 아닌 모든 자원을 총 집결해야 한다. 그래야 자본주의적이 아닌 삶의 관계, 영역이 개발될 수 있는 건데 독자적으로는 힘들다. 거기에는 반드시 문화·교육적 역량이 붙어줘야 하는 거고 지역으로 내려가면 생협이라든지 변호 사라든지 일상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이 단위가 결합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다. 그 지점이 돌파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빼놓고 얘기해봤자 도토리 키재기가 된다.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은 노동운동 내에서 더하기, 빼기를 계속하고 답을 내려 하고 있다. 몇몇 사회 단체의 경우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실현해볼수록 더하기 빼기 운동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가진 잠재력이 계속 훼손되고 있다.

산별이 필요하다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가 대세일 때 이런 문제가 설 땅이 없었다. 그런데 해보니 별로 아니었네 느껴질 때, 이럴 때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도토리 키재기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김: 아까 그 방법으로 매트ropolis유니온 지역사회운동노조.... 표현을 지역노조를 합시다. 그래서 서울 지역 25개 지부로 해서 만 명을 모을까 삼만 명 모을까.... 그 다음에는 일상에 있는 노조들은 치열하게 임단협 하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변혁지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개량의 폭을 넓혀가는 거고 조직이 넓어가는 것 뿐인데 여기서 딜레마가 딱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조직화에 대해 '천명을 넘겨야겠다, 오천을 넘겨야겠다'. 이런 욕심 없어졌다. 이 벽을 넘어서야 한다. 조직화를 해도 힘있게 조직하는 구조라고 하면, 지금 시기에는 지역노조방식으로 서울에서 전형을 한 번 만들어 볼 거고 재생산영역까지도 손대는 그 영역까지 답을 내는 조직으로 가는 것이 그건 필요하다 생각한다. 그런데 그 부분을 넘어서는 변혁전망, 자본주의 넘어서는 전망 이런 부분에서는 막연하다. 어떤 부분에서는 특정한 시기가 됐을 때 조직형태도 노동자·민중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어쨌든 노동자운동 관련해서는 1번에 올리고 정치나 이런 것은 선택과 판단의 형태로 가는 이런 질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 호감이 느껴지는 고민들이 있다. 아주 구체적인 플랜은 없어도 전망을 갖고 계신데, 규모가 큰 노조 예를 들어 이런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규모 있는 노조가 결의하게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 얼마든지 가능하다.

▷ 그러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확장하고 힘을 갖게 하고 기둥이 되게 하고....

김: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문제의식이나 방향성들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다. 근데 그건 똑딱 완성되고 난 다음 실천한다는 것은 이분법적인 거고, 당장은 그 문제의식을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위해서, 예를 들어 지역노조든 지역사회운동노조든 실현하기 위해서 뭘 먼저할건지를, 시작하면서 그런 방향도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만만한 일이 아니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망을 밝게 본다.

▶ 노동운동에서는 그렇게 풀어나가고 다른 운동들, 이 사회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노조가 아니더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단위들과 연대를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다. 그 동안 여러 사회운동 단체들과 교류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사실상 노동운동으로 휩쓸려 들어가거나 아니면 조직이 거의 무력화되면서 사실상 존재의 의미가 별로 없는 상황이 되 버렸다. 노동운동은 오히려 버티고 있는데 그 운동들이 현실에서는 굉장히 무력화됐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노나메기 재단'의 경우 지역적 운동이면서 전국화를 꾀하는 그런 단위다. 그 재단 설립 준비위가 만들어졌는데, 주목해볼 만하다. 마포 민중의 집도 그 산하에 부분이고 엄청 큰 단위로 거기에는 교수·변호사·문화운동가 등 각 계 각층에서 참가하는 대대적인 작업이다. 이런 방식으로 대공업적으로 가야 한다. 옛날식 정파구도에 매여서는 안 된다. 확 풀고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관계성 속에서 시야가 생기는 건데 관계성이 좁으면 시야도 좁을 수밖에 없다. 넓혀야 된다. 그 부분에 최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대안노조와 관련해서도 연결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포괄적으로 우리의 모든 자산을 다 털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다

**한국진보운동의 새 마당
노나메기재단 설립 추진위원으로
모십니다**



백기환, 그는 우리에게 하나의 대목이고, 산맥입니다. 한국·진보운동의 한 중심으로, 함께 찾아온 진정성에서 자신과 뜻을 주셨습니다.

"너도, 딸장고, 나도, 딸장고, 둘다로, 정사는 '노나메기'를 위하여 노나메기 재단을 위한 학술문화 재단과 마당을 이 제 1차에 함께 참여합니다. 또, 계속 참여합니다."

이제 2010년 12월, 재단·산하단체의 뜻을 모아, 많은 사람들이

김: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다. 운동의 시기가. 아까 얘기했던 민주노총이 추진해왔던 산별조직화가 추진했던 그 당사자들이 이걸 아니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물결과 방향 조직화 방식 전망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도 활동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특히 지역노조 활동하면서 많이 느꼈다. 모두 비슷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현실화 될 거라 본다. 왜냐하면 다들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전의 낡은 질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아주 강하게. (기존 산별연맹, 과거의 운동방식)이 돈과 기존관계와 단위·역할·의무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으니깐 함부로 끊었다가는 손해 보는 것 같고 불안해하는 것이다.

▶마음만 급하게 먹고 조직관계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먼저 내용을 움직여 나가면 조직관계는 그 내용의 힘에 의해서 자동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조직관계는 우리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관계와 정권의 관계, 자본의 관계 속에서 크게 변동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내년 7월1일 이후 복수노조 허용문제 국면이 어떻게 전개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지각변동의 요소이다. 마치 타임오프제가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킨 것처럼 복수노조 허용은 그것보다 더 큰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 사업장이 몇 명이 가입을 하든 지역노조는 그렇게 클 수 있었다. 그런데 창구단일화가 되면 교섭권과 체결권에서 규모가 큰 기성노조에 확 밀리게 돼있다. 이걸 극복하는 방식은 여전히 규모 있는 조직화라고 본다. 지역노조 방식의 규모 있는 조직화와 이를 통한 규모의 확장 이것이 복수노조가 허용됐을 때 밀리지 않는 여전히 유효한 활동방식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복수노조시기 조직화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정규직 있는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을 안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많다. 어쨌든 창구단일화가 되면 그구조 내에서 힘을 갖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일단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기성노조들은 꽤 시끄러워질 것이다. 마찰도 많을 것이다. 좋은 쪽은 자본이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취사선택하면 되는 거고. 미조직 사업장에 이미 기성노조가 있는 비정규직은 불리하다. 한국노총이든 뭐든 기성노조가 있는 비정규직을 조직하려면 창구단일화에 막힐 것이다. 법을 재개정해서라도 이걸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은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우는 지역노조나 그런 방식으로 안고 가야 한다.

아무튼 복수노조는 이미 기성노조가 무력화되는 것을 촉진할 것 같다. 서로 노노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조직간 영역다툼이 기성 조직에서는 많이 일어날 것 같고, 미조직 영역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지역노조 큰 규모로 접근해서 지역으로 조직화해가면 그 힘으로 는 해 갈수 있을 것이다.

▷큰 규모로 조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김: 기업으로 조직할 수 있는 노동자도 있고, 직접고용 형태로 사업장에 매여 있는 미조직노동자도 많다. 계약을 맺은 곳과 일하는 곳이 다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들을 적극 조직하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단시간노동이 많은 청년, 실업자 등등. 청년 같은 경우도 이 청년유니온 만들어졌다. 아직은 이슈파이팅 밖에 못하지만. 그런데 이게 사실 사무연대노조나 지역노조에서 청년지부를 두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 많다. 힘 안쓰고도 돈때 먹는 편의점이나 주유소 때려잡는 것은 공문 하나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청년실업이나 일자리 문제도 서울시 앞에



김: '복수노조는 느낌상 상당히 시끄러울 거다', 이런 것은 감각적으로 읽혀진다.

▷복수노조 대응은 뭔지 물어보고 싶었다

김: 사실은 복수노조 창구정리가 되면서 지역노조들이 활동영역이 좁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산별노조 가입하거나 지부결성이 되면 바로 교섭권과 체결권을 근거로 교두보를 확보해왔다.

앞에서 서울시 상대로 일자리 내놓으라고 이슈파이팅하는 식의 '흐름으로' 조직할 수 있는 것이다.

▶ 한국 정도의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회가 다양화되면 복수노조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노동조합만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 등 대규모 노조의 경우 그런 입장에서 허용되는 것이 긍정적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 사회운동을 하기가 아주 좋다. 왜냐하면 대의원이 돼도 기존 활동관성(임단협 중심과 조합원들의 대소사 챙기는 일등에 압도된)에 포위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런 활동양식을 극복할, 정치적 신념을 가진 활동가들이 소수라도 노조를 조직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공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것이 많은데 그걸 알기 때문에 관료들이 그걸 싫어한다. 왜냐하면, 이게 허용되면 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평상시 복수노조 상태에서 200단위노조가 2만 단위 노조를 당해낼 재간이 없지만, 이번처럼 큰 시위가 터졌을 때, 200단위 노조가 평상시에 정치사상적으로 잘하고 조합원의 신뢰를 이끌어 내면 치고 나갈 수 있다.

한마디로 관료들은 파업 나가는 걸 막으려고 하고 200단위노조는 치고 나가는데 대중들한테 활동을 평상시 잘하면 대중들이 여길 따라오게 되어있다.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맛이라도 있는 건데 지금은 꿈쩍을 못하지 않나. 그래서 기존 체제에 하루하루 흡수되는 느낌인 것이다. 그나마 무진 애를 써서 기존의 흐름에 안 끌려 들어가려 노력하는데도 약한 곳은 계속 떨어져나가면서 끌려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간단해질 수 있고 그런 조직들을 엮어 전국 조직 만든다면 새로운 희망도 생길 것이다. 대의원 출마 안 해도 되고 임단협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런 입장에서 활동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고 그러면서 지역에 만들어진 지역사회연대체의 핵심적 활동가로 일할 수 있는거라 본다. 그런 힘을 갖고 2만단위 노조를 밑에서 압박하는 방식이다. 이런 점이 복수노조 시대를 보는 다른 긍정적 측면이다.

▷ 개인적으로는 어떤 계기로 노조활동을 하게 됐습니까?

김: 예전에 학생운동을 했다. 그 애긴 잠깐 빼고..... 제기동 한약방에 취직을 했는데 약재 써는 일 등을 하고 있었다. 그 때 생활정보지 가로수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배달 일을 하라고 제안해왔다. 다마스 끌고 배달 일을 좀 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당시 서사노(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초대 부위원장이었다. 그래서 그 때 서사노에 가입하게 됐고, 문화부장 맡아서 술이나 먹고 왔다 갔다 하다가(웃음), 2000년에 서사노 초대 이진희 여성위원장이 사무금융연맹에서 사람 뽑는다고 나를 추천했다. 노조활동 경험이 일천하여 고사하다가 2000년 5월18일에 연맹 조직국에 출근하게 됐다. 연맹에서 6년간 만 5년 활동하다 연맹위원장에게 해고되어 연맹위원장실 점거 농성했는데, 위원장 책상 빼고 그때 전국적 파동으로 갔었다. 복직하고 연맹선거 앞두고 그만두고 나서 농협노조에 1년 정도 있다가 나왔고 그 때부터 서사노 4대 위원장을 맡았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다. 5대 짜 전국사무연대노조로 조직변경 하고 1대위원장이 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규약상 3번 연임이 불가한 핑계로 일선에서 물러서서 에너지도 보충하고 지금까지 고민했던 활동 관련한 추진을 모색하려 한다. 현재 서비연(서울지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 그러면 향후 협의체부터해서 묶어내는데 좋은 위치가 되겠네요?

김: 이후에는 전국사무연대노조도 지원하면서 개인 일도 하고 그러면서 지역,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구상들을 구체화하는 것들을 할 것이다. 60살 먹을 때까지는 하기로 결의를 한 거니까....(웃음)



기획

전지구적 규모의 금융적 축적과 군사적 패권에 맞선 투쟁과 전략

들어가며

“공황은, 노동자들이 자신을 자본가들로부터 개별적인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한 싸움에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산업이 상승일로에 있을 때에 그런 양보는 획득될 수도 있다.(한국의 1987~91). 그러나 경기가 침체될 때에는, 자본가들은 그들이 양보 했던 것들을 철회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무력한 위치를 이용하여 임금을 깎아 버린다.(나아가 무자비한 해고의 칼날을 휘두른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사회주의적 노동자 계급의 군대가 자본가 사적 소유의 지배를 타도하기 전까지 불가피하게 계속될 것이다.....사회적 생산을 사적 소유에 종속시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가를 폭로해 주는 공황의 교훈은 매우 배울 점이 많아서 이제는 심지어 부르주아 출판물들조차 예컨대 은행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1901년 8월, 레닌, 공황의 교훈 중에서 인용>

2008년 미국의 주택대출부실에 따른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와 정치, 즉 지구사회자연생태계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요동치고 있다. 우리가 너무 좁게 자신의 삶에 웅크리고 있어서 그렇지 조금만 주위로 시선을 돌려보면 세상은 난세이다.

쇠는 달구어져 있을 때 때려야만 우리가 원하는 도구를 만들 수 있듯이 세계적 규모의 공황시기야 말로 우리혁명의 사상적 내용(슬로건),조직형태,투쟁형태 또한 일상적 모습 뒤에 가리워져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나마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우리의 임무는 희미하게 나타난 혁명운동의 전반적 양상을 지구촌의 수많은 투쟁과 삶의 여정,과학적,역사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보다 뚜렷하게 형상화 하여 세계 곳곳에서 전개되는 투쟁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피어린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투쟁의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이다.



1) 투쟁형태에 대해서

혁명투쟁의 전개는 슬로건(사상적 내용,가치,세계관), 조직형태,투쟁형태의 3박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분리되지 않으면 한 요소가 다른 요소들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 과정으로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그렇다면 21세기 초입인 2010년 지금,여기의 혁명운동의 세가지 요소는 어떠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사상적 내용(슬로건)은 그 동안의 정세분석 문건과 기아 10년 후의 논의로 대체하고 먼저 투쟁형태부터 고찰해보자.

“정치가와 군사령관이 내려야 할 최초의 가장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판단은 그들이 시작하려는 전쟁의 성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전쟁의 성격을 오판해도 안되며, 그런 성격을 그 특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변경시키려 해서도 안된다.”클라우제비츠 전쟁론 중에서... 그렇다. 싸우려고 하는 자는 싸우려는 상대방과 자신의 역량을 정확히 타산해야만이 백번 싸워도

결정적 패배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손자알,...지피지기 백전불태). 우리의 적은 누구이며, 어떻게 작동하고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작전개념을 갖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이며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어떤 작전개념을 가지고 움직이는가?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적은 미국의 거대금융자본과 석유,군수,IT자본가집단과 그것을 대변하는 정치,행정관료, 미국내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깔려있는 군대, 비밀첩보기관, 군사용 인공지능 등 실로 막강한 단위와 이들과 부분적으로는 경쟁하지만 세계지배에 공동이해를 갖는 각국자본가,정치지배집단이다. 세계적 규모의 헤게모니이동시기에 이들의 갈등은 정도를 넘어설 때도 있지만 이윤의 확대라는 지상명령 앞에 이들은 늘 복종한다는 의미에서 한편이다.

이 지구적 지배세력은 89~91년 동구권 국가사회주의 몰락 이후 절대적 패권을 장악하며 결국은 달러의 기축통화,발권권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전일적으로 지배한다. 헤게모니가 물리적 폭력의 우월을 바탕으로 동이에 기반하는 것이라면 91년 걸프전 이후 미국지배계급의 통치형태는 깡패적 횡포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군사패권을 바탕으로 말도 안 되는 달러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다.

군사적 패권과 금융패권을 강력한 무기로 하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공세는 한편으로는 핵무기와 MD방어체제에 입각한 군사적 절대우위와 달러 기축통화,발권이익을 바탕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의 개발과 이의 세계적 확산을 무기로 원자폭탄을 능가하는 금융핵폭탄을 완성하여 세계를 주무르다 2008년 금융공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헤게모니하에서 군사적 부담을 덜고 성장을 거듭한 독일 중심의 서유럽과 일본중심의 동아시아가 80년대 이후 급격하게 경제적 패권을 위협하자 플라자합의 등 강요에 의한 부의 탈취와 오일달러,동아시아 달러의 환류시스템을 만들어(볼커의 반혁명) 세계정세는 최소한의 룰(브레튼 우즈체제,고정환율,미소냉전에 의한 공포의 평화)을 붕괴시키고 파국을 향하여 치달고 있는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사회주의 몰락으로 인한 대혼란(보스니아 등 주로 중앙아시아,동유럽의 극심한 사회해체와 동요),아프리카,남아메리카의 사실상 포기(원료 착취지와 무기재고 처리를 위한 전쟁화,비밀자금 확보를 위한 마약거래의 확보),이라크 등 달러패권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응징,냉전시기 구소련에 대응한 민간게릴라에 대한 지원중단과 토사구팽으로 인한 거대테러집단의 형성이 동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편 미국헤게모니 몰락에 따른 대응으로서 금융화는 기존의 국가주권을 해체하고 극단적 시장개방,민영화,사회복지의 해체,실업난의 가중,제3세계의 파산으로 귀결되면서 기존의 진보세력(사회주의적 정당운동과 노조,시민사회운동)을 괴멸하거나 체제내로 흡수함으로써 자본지배계급과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온 과정이었다.

이 것은 포드주의 축적체계가 붕괴하고 포스트 포드주의 축적체계가 들어 서면서 포드주의 축적체계에 근거한 운동들이 무너진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구춘권, **지구화,현실인가?...**)

미국은 자기아래의 아홉나라 전체군사비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군사비와 경제위기가 와도 달러를 찍어내고 우리(미국)가 망하면 모두다 망한다는 협박논리를 바탕으로 절대적 군림국가가 되었으며 이러한 미국의 힘은 다른 모든 나라의 자본가,정치지배집단을 자기영향력하의 노예로 끌어들이으로써 세계사회생태계에 심각한 기압차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옛 방식의 저항형태는 지리멸렬해진지 오래이다.

그러던 중 2001년 9월11일 날 미국뉴욕 월가는 대규모 테러를 맞이하게 되며,테러를 빌미로 아프간,이라크를 침공하여 대승을 거두나 오히려 문제는 대승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전의 요인암살중심의 테러를 넘어선 적의 사회심리적 중추부를 마비시키는 무차별적 테러인 메가 테러리즘은 군사적으로 철옹성인 미국의 방위시스템을 뚫고 미국사회를 마비시켜나가고 있다.(마치 19세기 말기 영국이 경쟁국가와의 전쟁과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의 격화로 영토제국주의 유지비용이 급격히 상승하여 헤게모니국가의 지위를 상실한것과 동일할정

도로).

얼마 전 이별을 안타까워한 연인으로 인한 공항마비 상태와 학교에서 책상에 낙서한 초등학생에 대한 긴급체포, 빈발하고 있는 총기사건 등 미국사회의 사회 유지능력은 급격히 쇠락하고 있다.

미국의 초극강군사력에 대응하는 메가테러리즘적 저항은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좁게 보면 이라크, 아프간 파병으로 인해 한국 자체가 메가테러리즘의 대상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각심을 갖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 미국과 미국의 세계지배에 대한 대응이 왜 메가테러리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것이 우리혁명운동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폭 넓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조직형태에 대해서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세계지배양상이 달라지면서 (군사화, 금융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오던 진보세력의 구조적들은 사실상 붕괴상태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당, 노조운동이 무력화됐다는 말이지 대중들의 투쟁이 멈추었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대중들의 저항은 물이 단단한 곳을 피하고 높은 데서 낮은 곳을 향하듯 끊임 없이 변신하면서 줄기차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시야는 지구촌 전반의 다양한 저항운동에 정서적으로 이론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기존의 조직운동형태는 지리멸렬해졌는가?

(지난해 산별노조평가서에서 인용)

산별노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물론 이론적 모색은 91년 소련붕괴 이후 적극적으로 나타났으며 임영일 강신준(영남 노동연구소)등 독일 유학파들에 의해서 주도 되었으며 현장에서는 문성현을 축으로 하는 중앙파가 적극적으로 임했다). 1997년 이후는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다. 산별노조는 주로 1945~1975년 자본주의 전후 황금기에 독일 스웨덴에서 양날개로 형성된 강력한 사회민주당과 산별노조 시스템이다.

사민당 주도로 사회복지망을 형성해서 주택, 의료, 교육을 전국민적으로 보장받고 동일 산업내에서 동일 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는 조건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진보정당-산별노조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독-스는 제조업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이었으며, 우익세력이 극도로 취약한 속에서 진보진영의 사회적 영향력이 사민당이라는 형태로 강력하게 조직된 곳이라는 특성이 있다. (일본, 미국과 비교 필요)

진보정당 사민당-산별노조 양날개 시스템은 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 황금기에 극우반동이 약화된 곳에서 노사협조를 바탕으로 한 생산력 제고를 통한 분배시스템일 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95년 민주노총 출범 이후 본격화된 산별노조 건설시기는 전후 황금기가 80년대 후반 무너지고 신자유주의 물결이 거세지던 시기였으니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식의 대응이었던 것이다.

또한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으로 강하게 제기했던 기업별노조의 한계라는 것도 93년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현상이 분절화되고 무력화 되는 것(95년 한국노동운동의 본산이라 불렸던 현대중공업노조의 무쟁의 선언은 정도의 차이일 뿐 이미 무너진 노동운동 진영의 기세를 보여준 사건일 뿐이다)을 산별건설론자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92~3년을 경과하면서 87~91년 시기에 보여준 노동운동의 전투성, 민주성, 연대성, 자주성이 뚜렷이 약화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울산의 경우 먼저 이야기한 현중노조가 세계화, 무한경쟁논리에 굴복하면서 95년 윤재건 집행부 시절 무쟁의 선언을 하였으며 그 후 현중은 집행부의 민주성 여하를 불문하고 파업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2004년 금속노조에서 제명된다.

이러한 전투성, 민주성, 연대성, 자주성정신의 약화와 운동의 쇠락은 93년 김영삼 등장 이후 벌어진 93년 현충련 연대투쟁과정의 대혼란에서 발생, 심화 되었으며 95년 현자 양봉수열사 투쟁, 96~97노개투, 98

년 현대차 정리하고 분쇄투쟁과정에서 정점에 달했다.

다시 강조하건데 위의 결정적인 노동운동의 후퇴를 야기한 사건들에서 기업별 노조의 한계만을 읽는다면 이는 현실에서 크게 멀어진 판단이다. 오히려 87년 이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래로부터 투쟁과 대정부투쟁,민주주의 혁명,사회주의혁명이라는 기세속에 성장한 대중들은 맛이 간 활동가, 지도부들의 관념적 체념(91년 소련붕괴와 YS문민정부탄생에 따른 지식인 운동가들의 대혼란)을 넘어서 권력과 자본,기회주의의 노조지도부에 맞서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91년 소련붕괴 이후 더 이상 혁명성을 상실한 학출들과 그들과 연관된 현장 활동가들의 변절과 이탈,대중적 배신이 거듭되면서 사실상 현장은 구명난 거목상태로 전락한다. 그렇게 비틀거리는 중 97년 12월에 밀어닥친 외환위기와 그것을 역공의 발판으로 삼은 자본과 정권의 공세 앞에 거목이 쓰러지듯 현장은 무너지고 말았다. 무너지고 순치된 노동운동의 전망은 독일 스웨덴 모델이었는데 이게 더욱 문제를 악화시켜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

모든 것을 산별추진의 문제로 돌리는 건 억측이겠지만 조건과 상황에 걸맞지 않는 산별 추진으로 인하여 그나마 있던 역량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중앙파 주도로 진행된 산별전환 과정은 결국 김대중,노무현 정권과의 거래속에서 2006년 완성차 대공장이 사측의 지원아래 산별 전환이 이루어지고 복수노조유예를 매개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해오다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민주노총, 산별자체의 와해를 목표로 덤벼들자 커다란 혼란에 휩싸인 것이다).



낡은 조직형태는 그 생명성을 다했으나 새로운 조직형태는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은 것이 현재운동의 지리멸렬함일 것이다.

미국해게모니악화에 따른 금융화,군사화로인해 기존의 국가시스템이 악화되고 자본의 이동이 아주 용이한 상태에서,그리고 자동화,정보화로 인한 일자리의 급속한 감소상태에서는 당,산별,기업별 노조 중심의 대응은 결정적 한계를 갖는 것이다.(당운동,노조운동 자체의 거부와는 다르다 .당의 건설과 지도부장악중심운동, 노조의 건설과 노조집행부장악중심운동의 사상적,조직적,투쟁적 양태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이며,국제적 연관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이로부터 얻어지는 교훈은 우리의 슬로건,조직,투쟁형태는 일국적 수준을 넘어서야 하며, 지역적 자기독자성을 가져야 하며(지역의 범위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신축성이 있을 것이다),기본적으로 노동현장에 일정규모의 핵심역량건설이 필요하며,이 조직은 규모 자체를 늘려서 몇 백 단위가 돼서는 안되며(. 집행부장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 오히려 숫자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내적으로 조직의 대외활동보다는 ,내부정치와 내부갈등 다른 조직과의 경쟁격화,사측개입의 용이성만이 생길 뿐이다). 오히려 대중교육,선전,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대중접촉면을 늘리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후원회원구조 중요).

그리고 이러한 현장핵심조직의 대중적 표현의 일차적 양태는 부서소식지형태가 좋을 것이다.

나아가 몇몇 조직들이 보여주는 자기근거가 없이 배회하는 운동은 문제가 심각하다(주관적 열망과는 상관없이 매뚜기 효과만 날것이다).자신들이 주력하는 사업장 하나 없이 투쟁이나 학습,선거를 매개로 개입(?)하여 일회성으로 이용하고 자리를 뜨고 일점돌파라는 명분아래 내용 없는 문지마 연대투쟁의 선도성과 선명성으로 운동진영 내부의 주도권을 형성하려는 운동방식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현장에 기반하면서도 지역에 열려있는 조직, 숫자의 확대를 조직의 사상적,동지적 결속과 우애에 기초하는 조직이야 말로 몇 년이 걸려서라도 우리가 만들어

야 할 조직이 아닐까 생각된다.

글을 맺으며

**노조가 수 백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노조를 조직하였다. 커다란 성과이지만 우려했던 모든 문제를 또다시 노정하려 하고 있다.

이미 우리에게서 민주노총 80만 조직대오가 있다. 그런데 또다시 조직화에 나선이유는 무엇인가? 기존 운동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함이 아닌가?

**노조 소개 팸플렛을 보았다. 노조를 건설하면 고용이 보장되며 임금이 오른단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이 보장해준단다. 그럴 수도 있다. 아니 이렇게 소개가 나가야 사람들이 문을 두드릴 것은 오히려 자명하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오히려 역일 수도 있다. 그나마의 고용,임금이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마자 더욱 불안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역설적 현상이 비정규,영세사업장노조운동에서 곧잘 벌어진다. 노조 건설하고 사측이 회유에 들어오면 바로 엎어지는 거다. 현자,현중이 10여 년에 걸쳐 무력화되는 현상이 오히려 죽자살자 노조 만들어 성공하면 바로 나타나는 것이다.

현장에서 다 깨져서 지리멸렬한,아니 겨우 숨구멍 밖에 붙어있는 사람들한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글을 써야 하지 않아야 하겠는가는 생각이 글을 쓰는 내내 나를 짓누른다. 상황이 힘든데 조그만 개선,아니 뭔가가 시적 성과를 내자고해야 사람들이 불지 않겠는가? 우리는 대세와 상식의 신화를 넘어서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걸어온 운동에 대한 주체적이고도 총체적인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

아직 걸어보지 않은 길을 제시하는 동지들에 대한 비판은 언제나 환영이다. 걸어보지 않은 길에는 얼마나 예기치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는가?

하지만 기존운동의 변혁이 아니고 개선,개혁을 이야기 하는 동지들은 기존운동에서 자신은 무슨 일을 했고 어디에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으며 어디서 막혔고 그 막힌 지점을 누구와 어떻게 뚫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추상적 이론과 평가 이전에,다른 조직비판이전에 자기운동에 대한 평가와 그 속에서의 전망제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각설하고 **노조 사례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나의 고민은 다시70~80년대 혁명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교훈에서 찾고 싶다.

그때 전두환 군사독재 타도, 전국적 노조 건설,혁명적 조직건설. 노동해방쟁취는 지금 자본주의 갈아엎자는 구호보다 더욱 현실성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죽어도 그 길을 가자고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렇듯이 처음6개월~1년이 중요하다.

“노조를 만들다가 우리는 해고될 수 있으며 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다. 나도 겁나는 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도 안되는 자본주의 세상을 뒤집어 엎는데 평생동지다. 우리 그 길을 함께 가지 않겠는가? 고생스럽지만 인간답게 살수 있는 그 길을...>“

동지들!!! 나는 지금 무슨 각오와 의지를 갖고 다른 동지들을 만나고 있는가?



번역

중국 자동차 파업



올해 5월에서 6월 사이, 외국자본 소유의 자동차 공장에서 일어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일련의 파업이 중국의 해변 지역 도처에 퍼져나갔다. 중국 내 파업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파업물결은 최소한 세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노동자들이 보장받은 양보의 양, 중국 언론이 이 파업을 홍보한 정도, 파업을 통해 의제로 등장한 노동조합 개혁의 진열 현상이 되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비록 기본적으로는 불공평한 임금이 파업의 원인이었지만, 노조 대표성이라는 보다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시도도 일부 존재했다. 내가 이야기를 나눈 혼다 공장 파업 참가자들은 당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분명 정치에 개입하게 되었으며 중국 자동차산업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던 파업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다.

중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파업은 5월 17일에 시작해 6월 4일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구양둥(廣東) 휘산(佛山)에 있는 혼다의 난하이(南海)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 파업은 공장 조립 부문에서 일하는 2명의 노동자들에게서 시작되었다. 생산라인에서 그들의 부서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두 명의 젊은 노동자들은 조립부문 다른 노동자들의 협력을 재빨리 얻어 거의 공장 전체의 생산을 정지시킬 수 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2주를 넘어서는 항의를 촉발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는 1900여명 가량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이 파업은 결과적으로 혼다 공장 4곳의 생산을 멈추게 했으며 다른 외자 소유 자동차공장에서 최소한 11개의 대규모 파업을 촉발시켰다. 이 파업물결은 단지 자발성의 결과였을까? 이 파업은 왜 자동차산업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을까? 또한 왜 대부분 일본자본 소유(혹은 일본이 투자한) 공장에서 발생했을까?

비록 난하이 혼다 파업이 한결같이 파업의 불길을 점화시키는 불꽃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제노동조합연맹 / 국제산별노련(ITUC/GUF) 홍콩 연락사무소의 보고에 따르면, 난하이 파업은 사실상 한 해 전인 2009년 6월 시작된 기업 관련 산업 불안정이 축적된 결과였다. 이러한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난하이 파업의 많은 부분이 단지 어느 정도 자동차산업에 국한되었다는 점과 두 젊은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결정에 대한 단순한 반응 그 이상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파업의 물결은 처음에는 중국 공안이 보고한 것처럼 1990년대 초기 이후 2004년과 2005년 사이 8천 7백 건의 사회 불만 사건이 각각 전국적으로 7만 4천 그리고 8만 7천 건으로 증가했던 것과 맥락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통계가 지니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중국 공안은 2006년 이후 이 통계에 대한 발표를 중지했다. 게다가 최근 파업은 2003년 이래로 노동자 불만이 정점에 달했던 주지앙 삼각주

(珠江三角洲: 중국 산업의 심장부) 내에 집중되어 있었다. 비록 주지양 삼각주가 높은 비율의 합법적 수단을 통한 노동분쟁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이 지역에서 저항과 파업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선전(深圳)시에서만 1993년 벌써 60건의 파업이 보고되었으며 1999년에는 110건의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다. 더 넓은 광둥 지역에서는 1994년과 1995년 사이 182건의 파업이 일어났고 여기에 4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참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최근 파업이 분명 선례를 남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언론의 관심과 지지는 기존의 규약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난하이 파업은 시작한지 첫 주 내에 중국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난하이는 트랜스미션 공장이기 때문에 파업은 25일 꾸앙저우(廣州)의 3개 조립 공장에서, 27일 우한(武漢)의 1개 조립 공장에서 생산을 멈추게 했다. 이들 다른 혼다공장에서 생산이 중지되자 서구 언론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공중앙선전부(中共中央宣傳部)는 5월 28일 파업보도 끌어내기 위한 지침서를 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앙둥지역 언론은 파업이 결론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파업을 보도했다. 5월 31일 지역조합과 연계된 200명의 폭력배들이 한 노동자 그룹을 폭행한 후, 난하이 파업은 전국적인 사건으로 변화되었다.

노동조합, 동조적인 학자들, 파업 노동자 당사자들이 발행한 소식지 모두가 주요 언론에 실렸다. 그러는 동안 이 모든 내용들은 폭스콘 테크놀로지(선전에서 가동되고 있는 타이완 소유 전자 제조업체) 노동자들 처우에 대한 분노의 기류 속에서 증식되고 있었다. 중국 언론은 따라서 난하이 투쟁을 단지 전례 없는 분출이 아닌 보상과 존중을 위한 이주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으로 나타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것이 발생하도록 허용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중앙 정부의 암묵적인 승인을 반영한다. 요컨대 이번 투쟁이 사실상 주목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난하이 혼다 투쟁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투쟁이 중국 언론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지지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동차산업과 전국적인 차원에서 다른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주었던 것은 분명 바로 이 언론의 관심이라는 점 때문이다. 혼다가 500위안(약 33% 인상)까지 난하이 노동자들의 월급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 소식이 다양한 광둥 신문에 실리게 되면서 다른 혼다 노동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불만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주지양 삼각주 자동차 부문 공장들은 지역적으로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구전을 통해 기업들 사이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모방 파업이 자동차산업 도처에서 분출했다. 중국 언론이 연이은 파업에 대한 보도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반면 홍콩과 서구 언론은 투쟁에 대한 반응으로 갑자기 생겨난 다양한 중국 인터넷 포럼에 이러한 투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노동 불안은 최소한 자동차산업의 11개 다른 공장으로 번져갈 수 있었다.

나는 6월 말 경 주지양 삼각주로 내려갔는데 당시는 마지막으로 보도된 파업이 끝났을 때였다. 노동자들 그리고 다양한 노동 비정부 조직들과 만난 것은 물론, 샤오란(小欖) 산업지구 주변을 걸으며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샤오란은 혼다락(Honda Lock) 노동자들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던 종산(中山)의 제조업 소도시이다. 1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출입문이 달린 공장단지들이 산업지구의 기다란 주요 지역을 따라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다. 거리에서 본 약 1/3의 차량들은 선적용 트럭이었다. 샤오란 원주민이 아니라서 거주가 허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6월 9일에서 18일 샤오란의 혼다락 노동자들은 경영진에 대한 저항으로 파업을 지속 하고 있었다. 난하이 혼다와 마찬가지로 혼다락은 노동자들이 조합 간부에 대한 재 선거를 요구하며 서너 번의 파업을 벌였던 곳 가운데 하나 였다. 그러나 난하이 파업과는 달리 경영진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동자들은 원래의 요구 사항 중 많은 내용을 재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6일 간의 투쟁과 3일 간의 기다림 끝에 혼다락 노동자들은 결국 고작 200위엔 임금인상과 80위엔 주택 보조금에 합의했다. 이는 최소한의 양보를 얻어낸 티엔진의 도요타 고세이(豊田合成) 파업과 겨우 동등한 수준이다. 한 노동자는 나에게 이번 파업은 솔직히 “실패작”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합 재선거 요구는 결코 난하이에서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 대신에 노동자들은 “회사는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었다. 이는 혼다락 지분의 30%를 사오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데서 나온 놀라운 양면성인 듯하다! 반면에 이곳의 파업이 그렇게도 성공하기 어려운 분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좀 더 명시적인 정치적 요구를 하고자 하는 시도는 어느 정도 명료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아는 한 기업 차원의 조합을 재구성하려는 요청은 난하이 혼다, 혼다락, 덴소(Denso) 등에서 제안되었다. 그러나 많은 외국 기자들은 이를 전적으로 독립적인 노조에 대한 요청으로 잘못 해석했다.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의 유일한 합법노조는 중화전국총공회(中華全國總工會; 전총)이다. 명목상으로는 독립 노조이지만 사실상 “전총”은 준정부기관으로 활동한다. 기업 차원의 조합은 종종 중국공산당 간부단 혹은 관리들이 그 의장직을 맡고 있다. 그러나 기업 조합간부를 재선출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중국 노동법으로 보호된다. 애니타 찬(Anita Chan)이 파업에 대한 그녀의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공장 조합 재구성 요구와 “전총”으로부터 독립적인 조합을 설립하는 권리에 대한 요구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요구를 한 노동자들은 따라서 합법적 권리 범위 내에서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행히도 그러한 요구는 외신 보도에 나타난 정도의 정치적 도전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명확하게 해야 할 또 다른 영역은 이번 파업물결이 왜 대체로 일본 소유의 기업에 국한되었는가의 문제이다. 어떤 언론 해설자는 이것이 일본을 향해 아직까지

도 남아있는 분개심과 연관되어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이번 파업은 민족주의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오히려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이 난하이의 승리를 통해 단지 그들의 교섭력을 더 잘 자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것이 혼다와 연계된 노동자들을 대담하게 하여 유사한 요구를 하도록 만든 것이었다.

두 번째 가능한 설명은 일본 공장에서 발생한 파업이 언론의 균형을 잃은 보도를 받게 되었을 뿐 사실상 겉보기보다는 다소 훨씬 적은 비중을 차지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자들은 중국회사나 지방* 공산당에서 나오는 정보보다는 일본회사에서 나오는 정보에 좀 더 잘 접근할 수 있다. 게다가 많은 신문들은 어떤 다른 부문보다는 가공할 일본 자동차산업 내부의 중국 노동 불안에 더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파업물결은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컸을 수도 있는 것이다. 국제노동조합연맹/국제산별노련(ITUC/GUF)의 보도뿐 아니라 서구 신문 도처에 산재한 자동차산업 이외의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던 수많은 불안의 징후들이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비록 대부분의 분쟁이 일본 소유의 자동차 부문 공장에서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해 보이긴 하지만 파업물결이 결코 이 그룹에서만 일었던 것은 아니었다.

* ‘지역 공산당’ 이 자연스럽고 또한 의미상으로도 더 나은 것 같으나, 중앙정부:지방정부와 같이 ‘공산당 중앙:지방공산당’임을 고려해야 한다. (校註)



끝으로 일본의 린(lean) 생산 기법은 분명 노동자들이 경영진에게 강력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다. 린 생산은 무재고 생산방식과 저임금 하청 노동자들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비용절감 전략이다. 내가 이야기를 나눈 난하이 혼다 공장 조립 노동자들은 회사가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데 공장 인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매우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조립부서가 중심축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 또한 잘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가 볼 때 공장 전체가 지도력을 찾고 있었다. 우리가 멈추면 그들도 멈췄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회상했다. 노동자들은 린 생산 기법이 일본 자동차산업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았지만 그 중 일부는 생산을 조직하는 어떤 방식은 다른 것에 비해 분규에 훨씬 취약하다는 것을 분명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협상력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강화시켰고 왜 많은 일본 자동차 부문이 이들의 목표가 되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5, 6, 7월 파업의 물결은 압도적인 성공이었다. 혼다락과 도요타 고세이에서처럼 최소한의 양보만을 얻어낸 경우도 물론 있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모든 공장들은 상당한 임금인상을 쟁취했다. 단지 임금인상을 얻어낸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인상을 쟁취해 난하이 혼다에서 500위엔, 덴소에서 800-900위엔, 최고인상을 따낸 것은 아츠미텍(Atsumitec) 노동자들로 그 액수가 980-1420위엔에 달했다. 비록 공장 조합을 재구성하자는 요구는 대개 무시되었지만 난하이 혼다 노동자들은 9월1일 조합 의장을 재선출하면서 앞서 나갔다. 게다가 이번 파업은 조합 개혁을 지지하는 이들이 광둥 지역에서 우선권을 갖게 했다. 후자는 평조합원들에겐 별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자주적 노동자 투쟁, 특히 자동차 산업 내의 투쟁이 “공산주의” 정권의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이다.

혼다와 중국 자동차산업

혼다는 1992년 중국으로 생산을 이전해 국영 기업인 동형(東風) 자동차와 합작투자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오토바이 부문을 제조하는 것만 관여했지만 결국엔 자동차 부문 생산과 조립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중국 정부는 외국 회사에 50-50으로 중국회사와 자동차 조립 부문에 합작투자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그러한 부품 생산에 연루된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중국은 (필수적으로 합작투자인)조립 공장이 사용하는 자동차 부문의 40%가 그것이 외국기업에 의한 것이든 국내기업에 의한 것이든 현지생산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혼다가 자동차 부문 생산의 막대한 비율을 중국 특히 광둥성으로 이전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현재 이윤 극대화 전략으로 추진하고는 했지만 오늘날 혼다 핵심 부문의 최고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서 가동 중인 외국 자동차 기업, 다수는 혼다의 하청기업의 현지 공급업체 생산이다. 한 지역에 너무 많은 공장이 집중된 상황은 말할 필요도 없이 혼다를 대규모 산업 불안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이는 아마도 혼다 공장의 파업이 왜 그토록 만연한가를 설명해주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취약성은 노동과 공장사이의 기술적 분화가 될 것이다. 난하이 혼다, 동형 혼다, 덴소, NHK 스프링(모두 부품 공장)에서 목격한 것처럼, 장비 축소는 연관 조립 공장의 생산 정지를 유발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이 구축된 방식 때문에 부품 부문에 대한 공급은 조립 공장을 통해 매일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품 보관 창고가 없기 때문에 앉아서 게으름을 떨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기법은 “무재고 생산방식”(just-in-time 즉 JIT)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1980년대 도요타가 처음 창안한 기법이다.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지만 이 기법은 또한 공급과 선적 시점에서 일어나는 분규에 매우 취약하다.

파업이 번지는 동안, 중국 노동자들은 이런 종류의 분

규가 어떻게 언론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협상력을 높여주는지 빠르게 배워나갔다.

부품의 현지 조달과 JIT 조달 체계는 노동 비용은 절감하는 반면 생산은 증가시키는 일본 자동차 산업 전략에 필수적이다. 이들은 “린 생산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린 생산의 중요한 측면은 저임금 생산 노동자들과의 하청계약이다. 이는 노동력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숙련되고 보수가 좋은 노동자들, 다른 한편으로는 비숙련, 저임금 그리고 임시직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자들로 나누는 것이다. 중국에서 이러한 전략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사이 자동차 산업 내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 이 하청 계약 체계는 고령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은 채 유연성을 향상시키도록 고안되었지만 노동자들의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동 계층화현상을 유발한다. 난하이 파업 기간 동안, 혼다 경영진은 인턴들을 정규 노동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분리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인턴들이 품은 격렬한 불만을 달래려 했다. 어떤 시점에서는 인턴사원들의 학교에서 파견된 학생들이 심지어 공장을 방문해 노동력의 1/3을 구성하고 있는 인턴들에게 경영진의 제안에 합의하라고 설득하기조차 했다. 다행히도 난하이에 대한 그러한 시도는 성공적이지 않았다.

어떤 분석가들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일본 자동차 산업 내의 계층화된 노동 체계는 유지 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의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기업들이 핵심 노동자들의 상대적인 보장을 줄여 이들을 저층으로 편입시키고 생산과정에서 그들의 노동을 단순화시켜야만 한다. 이것이 시장 내 노동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은 분명하지만 반면에 노동력 계층화를 해체해 노동자 연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마도 노동자 대부분이 비숙련 상태인 혼다락에서 두드러진 것 같았다. 혼다락은 대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노동자들에 대해 매우 효과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수 있었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상당한 정도의 연대감을 보여주었으며 파업 파괴자들을 고용하고 노동자들에게 쥐꼬리만한 100위안 임금인상과 해고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사측의 반복적인 시도에 분노했다.

비록 파업의 핵심적인 관심이 더 높은 임금과 보너스를 보장받는 것이었지만 중국 자동차 노동자들 그리고 특히 조립부문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타당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자동차 조립 공장의 노동 조건 또한 꽤 괜찮은 상태였다. 부품 공장은 이에 못 미쳤지만 말이다. 최근 몇 년간 그러나 자동차 노동자들의 봉급이 약간 감소 추세였던 반면 다른 제조업 부문은 증가해왔다. 이는 파업 물결이 절대적인 차원의 물질적 욕구에 관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다른 산업과 관련해 괜찮은 수준의 임금을 유지하려는 시도와 더욱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는 것 같다. 따라서 파업을 진행한 공장 중 단 한 곳만이 조립 공장이었을 뿐 다른 모든 공장은 부품 공급업체나 그 계열사였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 부문 공장, 즉 노동이 덜 숙련되어 있고 임금이 덜 지급되고 노동조건 또한 덜 만족스러운 공장의 노동자들 사이의 불만 수위가 일반적으로 조립 공장 노동자들보다 더 높았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혼다와 도요타가 파업으로 발생한 엄청난 이윤 손실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한편 이번 경우 중국 자동차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는 의도하지 않게 중앙 정부의 목표와 함께 만나게 되었다. 올 가을 통과될 예정인 중국공산당의 12차 5개년 계획은 GDP의 일정부분을 차지하는 임금 인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만약 중국 경제가 현 수준의 투자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면 중국의 생산력은 결국 세계적 수요를 능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 주도적 경제에서 내수소비 진작에 기반을 둔 좀 더 균형 잡힌 모델로 이행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임금은 소비 증가를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마련이다. 난하이 파업의 해결에 이어, 선전시 정부와 베이징시 정부 양쪽은 모두 지역 최소임금을 각각 10%,

2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 이래로 중국 절반 이상의 지역이 유사한 최소임금 인상을 발표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중국공산당의 사주를 받아 파업을 진행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국가적 부의 더 큰 몫에 참여하고자 한 그들의 요구는 의심할 여지없이 정부 내 특정한 입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 경제는 값싼 이주 노동자들의 땀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농업수입을 통해 간신히 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시골에서 태어났거나 성장했다. 그 결과 그들은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게 된다. 그러나 시골의 공식적 거주자들은 도시거주자들에게 보장되는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중국 이주노동자들의 수는 현재 중국 산업 부문의 57.5%를, 서비스 부문의 37%를 구성하고 있다. 주지앙 삼각주의 경우는 그러나 그 비중이 훨씬 더 크다.

주지앙 삼각주 이주민들은 대략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10% 정도가 사실상 도시노동자들로 종종 국영기업의 공식적인 고용인들이다. 이들은 좀 더 나이가 많고 숙련되어 있으며 보통 괜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머지 90% 노동자들은 시골 출신으로 30%는 농장 출신이고 60%는 이전에 학생이었던 사람들이다. 시골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향후엔 그곳으로 돌아갈 계획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심각하고 장기적인 노동분쟁에 잘 연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시되곤 한다. 이러한 일 반화는 농장 일을 알고 있는 더 나이 든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시골 출신 졸업생들에게는 분명 들어 맞지 않는 얘기이다. 고등학교와 직업 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노동자들은 주지앙 삼각주 이민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농사를 지을 만한 기술이 부족할 뿐 아니라 종종 가족 농장의 부양을 받을 수도 없다. 게다가 이들은 농부의 삶을 사는 것은 자신들이 받은 교육과 견주었을 때 상당한 퇴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따라서 특이한 그룹을 형

성하고 있다. 즉 이들의 장기적인 관심은 도시에 매어 있지만 도시거주민들이 받는 사회적 혜택은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파업 기간 동안 아주 맹렬하게 그 이빨을 드러냈던 것이 바로 이 노동자 그룹이었다.



주지앙 삼각주를 방문한 동안, 나는 혼다락 협상에 참여했던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자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원래 도장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 노동자는 협상 이틀째 되던 날 가족의 안위가 걱정되어 혼다에서 그가 차지하고 있던 직위를 사임했다. 그의 자녀들이 불과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내게 파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가와 협상에서 그가 잠시 맡았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치엔 씨는 여러모로 전형적인 혼다락 대다수 노동자들과는 달랐다. 그는 후난 지방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이후 당시까지 주지앙 삼각주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대부분의 동료들보다 연장자였으며 이미 결혼해 두 명의 자녀가 있었다. 일을 그만두기 전 그는 혼다락 도장부서에서 근무했다. 숙련노동자로서 치엔 씨는 공장 내에서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는 괜찮은 월급과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가 받는 존경 때문에 파업이 일어났을 때 그는 협상에서 자신 부서의 대표로 선출되었다. 이것은 그러나 거의 즉각적으로 그에게 문제를 초래했다. 이제 그는 “지도자”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고 사측은 그를 위협하거나 회유하는 등 여러 가지의 시도를 해왔다. 협상에 지치고 안위를 염려

한 치엔 씨는 혼다에서 자신의 직위를 사임하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다른 마을로 이주시켰다.

일을 그만둔 며칠 후, 치엔 씨는 옛 친구를 가장한 낯선 자와 접촉하게 되었다. 후난지방 사투리를 쓰던 그는 맥주 한 잔하자고 고집을 부렸다. 치엔 씨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길거리에서 그에게 다가와 강제로 그를 한 식당에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혼다락을 대변한다는 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치엔 씨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는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치엔 씨에게 만일 혼다로 돌아와 노동자들이 100위안 임금인상에 합의하도록 설득해 준다면 5년 치 월급과 승진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치엔 씨는 거절했다.

치엔 씨가 파업에 관여한 것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다. 그는 나에게 처음 파업을 하게 된 동기가 임금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협상을 하는 동안 사측이 그들의 낮은 임금 제안에서 양보하기를 거절하고 다수 노동자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회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자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치엔 씨는 난하이의 파업 소식을 접한 후 다른 동료들과 함께 회사 수입 대비 노동자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보았다. 혼다락 노동자들은 나중에 사측과 협상을 시작했을 때 이 정보를 참고로 이용할 수 있었다.

치엔 씨와 나눈 대화는 또한 “노동자 대표 위원회” 구조와 협상 내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중국의 모든 파업은 불법 파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동 중인 회사들은 노동자들과 단체 협상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해야 할 특정한 절차를 개발해왔던 것이다. 혼다락에서 사측은 각 부서별로 그들의 요구를 적은 후 그 요구를 제시할 대표를 선출하라고 요구했다. 치엔 씨는 도장부서 노동자였고 이들 대표 중 한 명으로 선출된 것이었다. 1차 협상이 있기 전 12명의 대표들은 그들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논의하고 짧게 줄인 후 각 부서의 승인을 받기

위해 그 작성된 목록을 다시 되돌려 주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3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모든 요구가 승인된 후에야 11인의 “노동자 대표 위원회”는 사측과의 회담을 시작할 수 있었다.

바로 두드러져 보이는 한 가지는 사측이 협상 과정을 지시하는 정도이다. 비록 “노동자 위원회”의 구조가 상당히 민주적이고 충분히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직 자체도 그 과정도 노동자들의 자기 주도적 결과물은 아니었다. 첸 씨가 설명한 대부분의 내용은 내가 이야기를 나눈 다른 노동자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는데 난하이 혼다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이는 중국 노동자 그룹이 하부로부터 자체 조직된 급진적 노동운동의 잠재성을 해방시키기까지 얼마간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의 노동자 운동?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폴란드의 연대 운동 사례에 대한 대응으로 1982년 중국 헌법에서 제거되었다. 18년이 지난 지금 당시와 똑같은 두려움은 여전히 정부 내에서 공명하고 있다. 최근의 파업 물결이 비록 중국공산당 내부의 어떤 당파로부터 공감을 얻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분명 정치적 요구가 기존의 법적 틀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진적인 노동자 운동이 중국 내에서 발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욕구는 매년 GDP의 성장이 8% 상회하도록 하려는 이면에 깔린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이다. 이는 또한 조합 개혁을 향한 늘어나는 욕구 뒤에도 깔려있다.

지난 몇 년간 “전총”은 기업차원의 협상과 중재에서 산업 단위의 협상으로 자신의 초점을 변경 하기 시작

했다. 최근의 파업 물결은 단지 이러한 과정이 더욱 심화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의제에 대해 다른 변화들도 가하고 있다. 기업 조합이 고용주에게 재정적으로 덜 종속되도록 하자는 제언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게다가 기업의 민주적 경영을 강화하자는 논의와 구양동에서는 심지어 파업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를 회복시키자는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전총”을 개혁하는 데 중요한 돌파구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은 단지 자본의 협력과 심화 안정을 초래할 뿐이다. 진정한 노동 운동은 노동자 스스로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구축될 뿐이다. 최근의 파업이 향후 노동자 운동의 씨를 뿌리는 정치화 과정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희망해 보자. - 랜스 카터 (2010년 10월 28일)

국제

Andy Stern 종말과 현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조합 문제

수십 년 동안 1970년대 초 세계 위기가 시작된 이래로 전 세계의 선진 활동가들은 세계 노동계급에 쏟아진 무자비한 공격에 대한 방어적이고 보통은 고립된 (그러나 단호한) 투쟁을 공격적인 투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왔다.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SEIU)에서 15년간 의장직으로 수행한 Andy Stern의 부상과 최근의 몰락은 목전에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희미하게나마 이 시대에 노동계급 전체가 노동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비록 노동조합 형성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노동자들에게는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라도 말이다. 일반적인 관점에 도달하기 위해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Andy Stern은 올해 4월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의장직을 사임했는데 당시 그는 좀체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던 악감정과 추문에 휩싸여 있었다. 많은 논객들이 당시 언급했다시피 Stern 재임기간 90만 명의 신규 조합원을 더하며 “한 때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던 노동조합” 아마도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노동조합이 되었고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은



엄청난 탈퇴, 다른 노조에 대한 공격 그리고 SEIU 자체 내의 무제한적이고 독단적인 관료정치였다.

Stern은 SIGA Technologies, Inc 주1) 이사직을 맡기 위해 SEIU를 떠났다. 이는 1995년 많은 좌파의 소란스런 열의 속에 존스위니(John Sweeney)가 산별노조 총연맹(AFL-CIO)의장직을 맡으면서 시작된 미국 노동조합주의 “부흥회” 기간이 수척스럽게 막을 내렸다는 것을 뜻했다. 테크노크라트(많은 권력을 행사하는 과학 기술 분야 전문가)의 영향을 받은 Stern이 열의 비슷한 것이라도 지닌 대상은 결코 아니 었던 반면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 자체는 “진보적인”

1) SIGA는 전문적으로 세균전 병원균을 막기 위한 약제를 개발하는 회사이다.

노동조합 가운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Stern이 2005년 경쟁 상대인 승리를 위한 변화(Change to Win (CTW)) 연합을 구성하기 위해(다른 6개의 노동조합과 나란히) 탈퇴한 일은, 노동조합 쇠퇴를 역전시키려 한 스위니(Sweeney)의 노력이 비참한 실패로 끝난 뒤에 일어났으며 이는 현 자본주의 내 노동조합 상황이 지닌 불치의 증상을 훨씬 깊이 있게 드러낸 것이었다.

우리가 스위니(Sweeney)나 스텐(Stern)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들에 속하는 것도, 그리고 노동조합을 차후 “자발적인 계급” - 즉 모든 계급을 해체하여 세계를 의식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단결된 임노동 계급, 그리고 (무엇보다도) 즉자적인 계급-의 출현을 위한 (부드럽게 말하자면) 견인차로 보지도 않지만, 스텐(Stern) 시대의 종말은 196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미국 노동조합과 더 넓게는 노동계급 내 좌익 시위 수십 년간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해볼 기회와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전략적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 급진적 흐름을 형성하여 그 기간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훨씬 더) 불법파업의 물결을 탔던 “내부로부터 쏠증난” 당시 노동조합의 40여 년이 집짓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국 노동조합 내와 주변의 “평 조합원” 발전에 따른 광범위한 “자유주의”나 “좌파 공산주의” 환경 내에 존재하는 현재의 무익한 태도가 단지 “자본의 좌익” 내부에서 일어난 웅성거림일 뿐이라는 주장 또한 거부한다.

스위니(Sweeney)와 그의 팀이 1995년 산별노조 총연맹(AFL-CIO)를 장악하면서 전개된 상황을 다루기에 앞서, 미국 노동계급의 우울한 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각 투쟁 국면에 나타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60년대와 70년대 서구에서 나타난 모든 계급투쟁, 즉 미국, 영국, 프랑스의 불법파업운동, 프랑스의 5월

68혁명 그리고 이탈리아의 뜨거운 가을에서 1970년대 중반 이베리아의 독재를 종식시키는 데 기여한 포르투갈과 스페인 노동자들의 역할에 이르는 계급투쟁에서, 이들 중 어떤 경우도 노동조합 확장이 노동자들이 수행하거나 요구했던 내용에서 중심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1930년대와 40년대 미국에서 CIO가 (정부의 공식적인 합법적 단체협약 승인으로) 형성된 것은 이미 “단일 거대 노동조합”이라는 공개적 반자본주의 전략과 1905년-1920년 세계 산업 노동자 동맹(IWW)의 전술로부터 일보 후퇴한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대공황기와 2차 세계대전 종식까지 수백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요구하고 형성했으며 이는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의 뉴딜정책과 일어난 복잡한 변증법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1960년대와 70년대 불법 파업이 일어났던 동안 프랑스의 일반적인 파업, 이탈리아의 이른바 ‘다가오는 5월’ 그리고 그 후 일어난 어떤 파업에서도 노동자들은 “우리는 더 많은 노동조합을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당시 노동조합은 주로 급진적 노동자 운동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1970년대 초 이탈리아에서 노동조합 관료들이 많은 공장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이유는 이들이 노동자들에 의해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것은 2차 세계대전 후기 봄 맥락 속에 있으며 당시에는 노동자들이 직업을 바꾸기 쉬었고 오늘날과 같은 급격한 상황 악화를 상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때였다. 그 시기가 끝나고 수십 년간의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되면서 자본주의 구조조정이 일어난 이후 지금까지, 미국 내 어떤 주요 노동조합도 위기에 대처할 때 협소한 협동조합주의 관점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그 결과에 신음해왔다.



1930년대와 40년대 미국에서 산별노동조합회의(CIO)가 (정부의 공식적인 합법적 단체협약 승인으로) 형성된 것은 이미 “단일 거대 노동조합”이라는 공개적 반자본주의 전략과 1905년-1920년 세계 산업 노동자 동맹(IWW)의 전술로부터 일보 후퇴한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대공황기와 2차 세계대전 종식까지 수백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요구하고 형성했으며 이는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²⁾의 뉴딜정책과 일어난 복잡한 변증법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1960년대와 70년대 불법 파업이 일어났던 동안 프랑스의 일반적인 파업, 이탈리아의 이른바 ‘다가오는 5월’ 그리고 그 후 일어난 어떤 파업에서도 노동자들은 “우리는 더 많은 노동조합을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당시 노동조합은 주로 급진적 노동자 운동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1970년대 초 이탈리아에서 노동조합 관료들이 많은 공장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이유는 이들이 노동자들에 의해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것은 2차 세계대전 후기 붐 맥락 속에 있으며 당시에는 노동자들이 직업을 바꾸기 쉬었고 오늘날과 같은 급격한 상황 악화를 상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때였다. 그 시기가 끝나고 수십 년간의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되면서 자본주의 구조조정이 일어난 이후 지금까지, 미국 내 어떤 주요 노동조합도 위기³⁾에 대처할 때 협소한 협동조합주의 관점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그 결과에 신음해왔다.

자동차 노동자 연합(The United Auto Workers - UAW)은 예를 들어 1973년 75만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오늘날 아마도 고작해야 10만명 정도만 남아있을 것이다. 쇠퇴기 전 기간 동안 평 조합원이 떠

2) 처음부터 CIO의 상명하달 방식과 싸운 IWW 출신의 중요한 유입자, Staughton Lynd의 에세이 “우리 모두가 지도자이다-We Are All Leaders”: 1930년대 초기의 대안적 노동조합주의를 보시오.

3) 1987년에만 3천 건의 파업이 일어난 데 이어 1990년까지 지속된 파업물결 가운데 많은 경우 사실상 노동조합을 요구하고 형성했지만 남한에는 이러한 경향에 예외가 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1990년대 초까지 그러나 고요한 불길이라는 미사여구 하에 남한 노동조합 또한 자본주의 틀을 좀 더 친숙하게 수용하도록 정착 (그리고 패퇴) 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한국노동계급(The Korean Working Class): 1987-2008 대중파업에서 임시직 채용과 후퇴에 이르기까지’를 보시오.

나가자 반대그룹은 자동차 회사 “Big Three(GM, Ford, Chrysler)” 경영에 대한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수용을 비판했고, 조합 관료와 그들이 앞잡이들은 한 목소리로 “깨지지 않으면, 고치지도 말라”고 말하곤 했다. 이제는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깨져있다. 쇠퇴하고 있는 다른 많은 노동조합의 경우처럼 관료들의 주된 걱정은 자신의 퇴직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조합 회비의 유입을 보존하는 것인 듯했다. 1970년대 초, 이와 유사하게 국제 트럭운전자 단체(the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 - IBT) 소속 30만 회원들은 전국 마스터 화물운송 협정(Master Freight Agreement)으로 보호되었던 반면 오늘날 그 수치가 8만으로 떨어졌다. 거의 수수께끼에 가까운 농장 노동자 연합(United Farm Workers - UFW)은 1970년대 초 계약 하에 10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설립자인 세자르 차베즈(Cesar Chavez)가 사망한 1993년까지 그 회원 수는 고작 수천 명에 불과했다.

1973-1975년 세계 경기불황의 끝자락에서 당시 미국의 공식적인 실업률은 10% 가까이(실제 실업률은 의심할 여지없이 더 높은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미국의 다양한 좌파 그룹은 오래 가지는 못했던 실업자 동맹(그들 대부분이 채용을 목적으로 간신히 위장한 표면상의 조직)을 세웠고 1934년의 Toledo Auto-Lite 파업 같은 사례에서 나타난 유사한 조직들의 역할을 기억하기는 했지만 이 새로운 후퇴기에 이로부터 그리고 다른 “전 계급적” 접근으로부터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

IN(Insurgent Note) 제 1호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시기에 나타난 기나긴 쇠퇴의 특징인 거의 끝이 없는 일련의 패배를 언급했는데 이는 단지 “노동조합원”에만 해당되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의 좀 더 광범위한 계급 투쟁에도 해당된 것이었다. 뉴욕시 노동조합이 1975 뉴욕시 “은행가 쿠데타”⁴⁾에 재정을 지원하면서

4) 뉴욕시가 파산 직전에 이르자, 은행 채권자들은 “Big MAC”(Municipal Assistance Corporation)이라 불리는 별도 기관을 통해 시 예산에 대한 통제권과 총 감독권을 장악했다. 뉴욕시 노동조합은 수천 달러에 이르는 연금기금을 Big MAC 채권에 밀어 넣은 반면 은행가들은 4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 정리해고를 감행하고 공공서비스를 대폭 줄여버렸다.

사측과의 ‘고통분담’ 경향이 시작되었으며, 1979년 크라이슬러(Chrysler)에 대한 긴급구제가 이루어지면서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UAW)은 이를 따랐지만 항공교통 관제사들(PATCO)에 대한 폭력진압과 그 뒤를 이은 1983년 그레이하운드(Greyhound)버스기사들, 1984년 펠프스 도지(Phelps Dodge) 구리 파업 참가자, 1986년 P-9 정육업자 그리고 1987-88년 Jay, Maine 제지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탄압은 노동자들이 저항했다가 새로운 시대의 지침적인 양보, 공장 폐쇄, 아웃소싱과 전환 재배치 등이 불뭉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패배한 사례들이었다. 이러한 유혈 사태는 1990년대에도 지속되어 1993-96년 일리노이 주 상공업도시 디케이터(Decatur)에서 일어난 “3개 파업 - (Three Strikes” (캐터필라(Caterpillar), 스텔리(Staley), 브릿지스톤-파이어스톤(Bridgestone-Firestone))과 1996년 디트로이트 신문 파업에도 나타났다 2003-4년 캘리포니아 남부의 세이프웨이(Safeway-우리나라의 이마트 같은 슈퍼마켓, 역자주) 파업⁵⁾의 경우는 또 다시 그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조합 내 다양한 평 조합원 조직들의 주요 관점이었던, 단지 “조금 더 전투적인 것”으로 불법파업 초기와는 대조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계속해서 납득하게 만드는 것이다. ^{주6)} 세계 자본 축적은 벽을 들이 받았고 그 벽은 노동계급에게 떨어지고 있었다.



5) 이 패배에 대해서는 내가 쓴 기사 ‘미국 노동자들의 또 다른 패배에 대한 기록: 2003-2004 로스앤젤레스 슈퍼마켓 파업 (Notes on Another Defeat for Workers in the US: The Los Angeles Supermarket Strike of 2003-2004)’을 보시오. (home.earthlink.net/~lrgoldener/supermarket.htm)

6) 이 잘 알려진 패배담에 덧붙여, 노동자들은 어떤 전투도 벌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의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학대받고 있었다는 점 또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참고. Wallace Peterson, 조용한 불황-The Silent Depression, 1994, 기본 통계를 위해, 비록 케인즈 학설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일부는 지금까지도 낮은 수준의 주 혹은 지방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까지도 보상되어 왔으며 지금은 주와 시 재정적 전반적인 위기로 이마저도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다.

공평하게 말하자면 1970년대 이후 일부 노동조합은 회사 측과 싸워 궁지에 모는 데 사실상 성공했고 간혹 이기기조차 했다. Pittston(버지니아) 광부들의 1989년 파업은 광산노동자연합(UMW)의 협약이 파괴되는 것을 막았고 뉴욕데일리 뉴스 1991년 파업은 출판노동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사측 유혈사태를 막았다. 하버드 대학 노동자들과 훨씬 더 전투적인 예일 대학의 호텔과 레스토랑 지부 노동자들(HERE-Hotel and Restaurant Employees) 모두 성과를 거두었고 라스베이거스와 그 밖의 카지노 호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좀 더 성공적이었던 이러한 투쟁들이 대부분의 패배와는 대조적으로 경영자 측이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사실상 이전할 수 없는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유사하게 운송부분 노동자들도 가끔은 세계적 생산 흐름으로 새롭게 재조직되고 있던 “무재고 생산방식”의 요충 지역에 있다는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할 수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1997년 유나이티드 파슬(UPS) 파업으로 협약에 보장된 이상의 특정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파업이 불안정한 파트타임 노동의 확산을 강조하고 전에는 혹은 새로운(1970년대 이후) 시대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노동자 투쟁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전국적인 시야를 잠시나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텍사스 휴스턴의 경찰서장은 심지어 파업 중 이를 깨던 기사들마저 체포했다). 2년 후 세계무역기구(WTO)에 반대하는 “시애틀 전투”에 참여한 5만 명의 노동자들은 일부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포함한) 미심쩍은 사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과장 선전된 세계화와 (이제는 사용되지 않는) “신 경제”의 어두운 이면에 대한 언론에 도입된 보도 통제를 제거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시애틀은 일부 노동조합이 노동현장을 넘어선 힘을 보여 주고자 한 (비록 과장 되긴 했지만) 단지 하나의 실례일 뿐, 이들은 심지어 당시 평 조합원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조합원들은 공권력과 투쟁에까지 결합하게 되었다. 더욱 전통적인 것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민주당을 향한 짝사랑(감사하게도

수백만 노동자들은 무관심 했던 애정행각)이었다.

민주당 선거 캠페인에 수억 달러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선거운동에 조합원들을 동원⁷⁾한 대가로 미국 노동조합은 NAFTA와 더 나아가 터무니없는 “노동환경 보조금 제도”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예 CAFTA)⁸⁾을 얻었는데 이는 전국 의료보장제도를 확립⁹⁾하려는 하나는 실패한 그리고 하나의 유산된 시도였으며 “대체 노동자”(예를 들면 파업파괴자들)에게 주었던 법적인 보호를 후퇴시키는 문제에 있어 어떤 진전도 얻어내지 못했다. 노동조합 관료들이 선거판에서 벌인 이러한 결실 없는 우스꽝스러운 짓보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연금기금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으로 이는 앞서 언급했던 캘리포니아 남부 슈퍼마켓의 파업 같은 상황을 불러왔으며 파업을 벌이고 있던 식품노동자연맹(UFCW-전국 식품 및 상업 노동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 조합원들의 퇴직연금이 지난 주식시장 가치를 침몰시키는 격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탈가치화의 좌익”이라는 개념을 다른 곳에서 발전시켜왔다. “탈가치화”는 마르크스로부터 벌린 용어로 비용 절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노동 비용 절감이 포함되며 종종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 나타난다. “탈가치화의 좌익”은 노동자들과 다른 억압 그룹들에게 노동계급 전체의 사회적 총임금이 줄어드는 데 대한 보상으로 “조직”과 “참여”가 제공되는 표면상 “진보적인” 현상을 말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서구 전역에서 일어난 노동자 저항에 대한 반응으로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사회학자들이 고안한 자영 협동조합주의와 노동자 참여 제도 혹은 도요타에서 처음 발전되어 전 세계적으로 퍼진 작업팀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일 것이다. 착취는 강화되고 실제

권한은 없는 상태에서 인력을 동원하고 사이비(경영, 역자 주) 권한을 주어 노동자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이들의 내용이라고 요약할 수도 있겠다.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의장으로 15년을 재임하면서, 앤디스턴(Andy Stern)은 탈가치화의 좌익을 역대 최저 상태로 몰아갔다.

존 스위니(John Sweeney-과거 SEIU 소속이었던 많은 직원들을 포함한) 팀이 1995년 산별노조 총연맹(AFL-CIO)를 접수했을 당시, 1955년 전체 노동력의 35%를 차지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던 미국 노동조합원들의 가입률은 18%로 뚝 떨어졌다. 15년 후엔 더욱 떨어져 12%에 이르렀는데 이들 중 6%만이 민간부문에 속했다. 앤디스턴(Andy Stern)은 솔 알린스키(Saul Alinsky)의 급진적인 전술과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전 CEO 알프레드 슬론(Alfred P. Sloan)¹¹⁾의 중앙집권적 사업이 지닌 압도적인 힘을 결합했다고 주장해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은 가운데 등장했으며 그의 전임자였던 스위니(Sweeney)가 승진하자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의 의장직에 취임하게 된 것이었다.

스턴(Stern)은 처음에 사회복지사로 시작했다. 1950년에 태어난 그는 펜실베이니아 와튼 스쿨(Wharton School)에서 비즈니스를 공부기 전까지 신좌파의 맨 끝자락을 부여잡고 있었는데 그 이후 그의 시야를 넓히게 되었다. 사회복지사로서 쌓은 그의 경험은 그가 후에 참...신...한 방식으로 복지시설 간병인들을 조직하는 데 이용한 복지체계에 대한 통찰력을 안겨 주었다. 그는 비즈니스 스쿨을 다니는 동안 슬론(Sloan)

7) Stern의 SEIU는 일례로 버락 오바마 선거캠프에 8백5십만 달러를 기부했다.

8) NAFTA는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이었고, CAFTA는 중앙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이었다. NAFTA 관련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9) 추정되기로는 지난 20년 간 일어난 파업 중 80%에서 의료보장이 주요 쟁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주요 내용으로 제기되어왔다

10) L. Goldner의 미국 노동계급 리메이크하기(The Remaking of the American Working Class)를 보시오

11) Stern은 또한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예로 공화당 하원의원이며 우익 사상가인 Newt Gingrich.뿐 아니라 미래학자 Alvin과 Heidi Toffler를 들었다. 자신의 저서, A Country That Works에서 Stern은 심지어 미국 노동운동의 “계급투쟁 사고방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12) 다음 부분에 나오는 자료는 Robert Fitch의 저서 Solidarity for Sale (2006) 중 Stern에 관한 정보가 풍부한 (그렇지 않았다면 큰 결점이 있을 뻔한) 장(chapter), Steve Early의 Embedded in the Labor Movement (2009), 디트로이트를 기반으로 한 Labor Notes의 기사들에 의지한다. Fitch는 조직에 대한 Stern의 가장 중요한 발상은 Harvard Business Review에서 나왔다고 지적한다.

같은 학자의 경영 이론(분산되어 충돌하는 지방 권력의 기초를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데서 얻는 이익, 슬론(Sloan)은 GM에서 이를 행한 바 있다)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 이론은 사실상 전형적인 노동조합 지역 영지(군중이 통제하든 아니든)의 출발점이 되었다. 스텐(Stern)이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를 차지했을 때 이 조직은 1990년 로스앤젤레스 잡역부들의 정의구현 캠페인(Janitors for Justice campaign)이 지닌 명망에 편승하고 있었는데, 당시는 LAPD(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가 TV 카메라 앞에서 라틴계 잡역부들을 곤봉으로 구타하는 사건이 일어나 이후 벌어진 논란 때문에 사측이 할 수 없이 굴복을 했던 때였다. 잡역부들의 파업을 이끈 것은 중앙아메리카 예를 들면 니카라과와 엘살바도르 시민전쟁을 겪은 투사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미국 노동자들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잡역부들은 시간 당 4달러에서 4.25달러에 이르는 임금인상을 얻어냈지만 이들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기 전 흑인 잡역부들은 시간당 12달러를 받고 있었다.) Stern 시대의 전형적인 양식은 1995년 초 만들어졌다. 당시는 스위니(Sweeney)가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의장 마지막 사업으로 잡역부들의 LA 지부를 신탁관리에 위탁하려 할 때였는데 이미 이 기관 주요 정책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마찬가지로 투사들(이들 중 일부는 바로 똑같은 중앙아메리카 출신의 잡역부들)을 뽑아 놓은 상태였고, 그 후 이들을 워싱턴 노조사무국 출신의 지명 인물로 교체하여 대부분의 캘리포니아를 포괄하는 거대한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지부로 잡역부들을 재조직하려 했는데 이 지부 속에서 “평 조합원들”이 숨 막히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잡역부 선진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노동조합 본부에서 단식투쟁을 벌였지만 헛되이 끝나버렸다. 1996년 이후 앤디스턴(Andy Stern)은 이런 방식을 통해 모든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지부의 14%를 신탁관리에 이후 15년간 지속적으로 위탁해 버렸는데 보통 대학을 갓 졸업한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 직원을 파견하여 지역 지도부를 대체하는 방식이었다. 2002년 예를 들어 서비스종사자 국제노

동조합(SEIU) 샌프란시스코 87개 지부 잡역부들은 스텐(Stern) 방식의 합병을 방해했다가 신탁관리에 위탁되었다. 새 지부는 의료보장 문제에 있어 상당한 양보를 했다. 스텐(Stern)이 “시대착오적인 관습”이라 부른 피츠버그 29개 지부는 3개 주로 이루어진 거대한 기관에 합병되었다. 또 다른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 “지부”는 뉴저지 트렌턴에서 코네티컷 하트포드까지 뻗어가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었다 이는 정확하게 말해 스위니(Sweeney)팀이 약속했던 조직된 노동의 회복이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는 Andy 스텐(Stern)이 가져온 그런 종류의 회복으로 그는 15년 간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에 90만 명의 (최소한 서류상으로는) 새로운 조합원을 추가했다. LA 잡역부들의 사건 이후 개발되어온 스텐(Stern)의 방식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스위니(Sweeney)팀이 산별노조 총연맹(AFL-CIO)에서 승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향후 나아갈 길로 “큰 도로”와 “작은 도로” 중 어느 도로를 우선시할 것인지를 놓고 노동운동 내 그리고 주변에서 다소 잘못된 논쟁이 벌어졌었다. “큰 도로”는 노동자들이 (이제는 다행히도 잊혀진) “신 경제”의 급증하는 기술 부문에 참여하게 되면 미국 핵심 산업의 첨단기술, 기술집약적 혁신과 함께 고임금을 보장하는 전문직이 확대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공했다. “작은 도로”는 1970년대 위기로부터 “미국의 위대한 일 기계”의 참상으로 등장한 가난한 수천만 임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려는 견해로, 이 노동자들을 위대하다고 칭송했던 보수적 두뇌집단들과 유럽의 사상가 등 다양한 인물들은 당시 고임금 “정체”, 정리해고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률을 유지하고 있는 지루한 유럽, 조기 퇴직, 일반적 의료보장을 깨려 하고 있었다.^{주13)}



13) 이는 물론 EU의 바로 그 기반을 흔든 2010년 위기에 앞선 것으로 “앵글로-아메리칸” 모델 혹은 그보다도 못한 모델들을 도입하는 데 많은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이미 1994년 미국-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인 NAFTA 가결을 통해 “작은 도로”를 선택하게 하는 많은 새로운 잠재적 요소들을 제공했고, 이 협정으로 승인된 미국 수입으로 멕시코 농업이 파괴되면서 수백만 명이 멕시코를 떠나 스페인 엘 노트(El Norte)로 위태로운 이주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최저임금의 (혹은 더욱 악화된) 일, 빨리 한 몫 잡을 생각만 하는 고용주들 그리고 INS 이민국 경찰뿐이었다.^{주14)} 그는 뉴딜 큰 정부 자유주의의 다른 잔존 제도들을, 당시 환상에 불과한 부채주도의 “위대한 절제” 속에 나타난 시대착오적 관습이라고 치부하며 이와 더불어 기존의 사회복지를 폐지하여 여기에 수백만 명을 또 보태었다. “복지 개정”으로 영향을 받은 대다수가 ... 어린이들이었던 반면 클린턴의 “일할 복지”는 곧 엄마들이 이전 복지 수표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먼 교외에 있는 최저임금의 일이라도 하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씩을 출퇴근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더 많은 통행료 징수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던 스위니(Sweeney)의 “새로운” 산별노조 총연맹(AFL-CIO)는 클린턴의 복지 폐지가 낳은 결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첨단과학 자본가들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고임금 노사 공동통치를 향한 “큰 도로” 전략에서 어떤 역할도 수행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도로” 전략이 수월하게 승기를 잡게 되었다. 따라서 조금 앞당겨 이야기를 풀어보면, 2005년 산별노조 총연맹(AFL-CIO)와 스텐(Stern)의 승리를 위한 변화(Change to Win) 사이의 분열은 명백하게 전미자동차조(UAW), 전미철강노조(USW), 전미 광산 노동자조합(UMW) 혹은 IAM 같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던 (그러나 상당히 후퇴한) 과거 CIO 노동조합들과 새로운 수백만 최저임금 노동자들로부터 조합원을 얻고자 하는 노동조합들,

14) 참고. John R. MacArthur는 The Selling of “Free Trade”: NAFTA, Washington, and the Subversion of American Democracy (1995)에서 NAFTA 가결을 둘러싼 부정적인 배경을 기사체이지만 사실적으로 기술했다. 당시 멕시코의 살인적 전쟁(지난 3년간 28,000명 사망)에 대해 절망하던 역사적으로 눈먼 언론은 그 배경이 된 것이 NAFTA의 멕시코농업 파괴라는 사실을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즉SEIU, IBT, UFCW, UNITE) HERE, the Laborers (LIUNA) 사이의 분열이었던 것이다.^{주15)}

마르크스주의자(이러한 마르크스주의자)라면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이 분열은 주로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들과 절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들 사이의 분열이라고 말할 것이다.^{주16)} 당연하게도 이들은 또한 부문들 가운데서 이전 시기의 해외 업무위탁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았다.

스텐(Stern)은 재빠르게 살론(Sloan)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의 발상을 이용해 LA 잡역부 캠페인과 그 캠페인 여파에 대한 모델을 만들었다. 그는 뉴욕, 보스턴, 디트로이트, 시카고의 일부 마피아적 요소 혹은 유명한 뉴욕 지부 32(Sweeney 출현의 모태가 된) BJ의 악명 높은 구스 베버나(Gus Bevona) 일소를 꺾는 동시 사람들이 조용해지도록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일부 고액 퇴직금을 동원했다. 스텐(Stern)이 겨냥했던 것은 전국 병원노조, 장기요양시설, 공공서비스 그리고 건축설비였다. 스텐(Stern)이 사용한 조직 방법이 특이했던 점은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그레이 데이비스(Gray Davis)나 현재 막대한 선거자금문제에 휘말려있는 일리노이 전 주지사 로드 블라고제비치(Rod Blagojevich) 같은 핵심적인 정치인들을 조직하는 데 더욱 매진했다는 점으로 이후 이들은 단 한 번도 동원된 적이 없는 범주의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협약을 승인하곤 했다.

스텐(Stern)의 상명하달식 독단적인 접근에 대해 일부 비판이 일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15) Change to Win (CTW) 노동조합은 언급했다시피 SEIU, IBT (트럭 운전사들), UFCW (슈퍼마켓 종사자들), UNITE (몇 개의 섬유노동조합 결합조직), HERE (호텔 레스토랑 업계 종사자들)과 LIUNA(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Robert Fitch는 주요 CTW 노동조합 가운데 3개(SEIU, IBT 그리고 LIUNA)는 최근 들어 혹은 지속적으로 마피아의 영향을 받아왔다고 (앞서 언급한 책에서) 지적한다.

16) 상대적 잉여가치는 마르크스가 사용한 용어로 새로운 기술을 통해 노동과정이 강화되면서 생기는 가치를 의미하며, 절대적 잉여가치는 노동시간을 늘리는 데서 나온다. 상대적 잉여가치는 서구의 2차 세계대전 후기 우세했는데, 당시 축적이 한계에 달하면서 점점 더 많은 절대적 잉여가치가 기술집약적 산업의 부진한 이유를 벌충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힘과 발언권이지, 뭔가 가장 순수하고 지적이며 역사적이고 신비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노동자들은 단결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를 외치며 변화의 길에 서있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노동자들이 단지 민간부문의 8.2%만이 노동조합으로 묶여 있는 한 국가에서 그들이 가진 제한된 힘을 행사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냥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17)

캘리포니아의 경우 1999년 2월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는 주지사 데이비스(Davis)로부터 74,000명의 장기요양시설 간병인들을 대표할 권리를 얻어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의 플린트(Flint) 연좌시위 이후 “미국 내 가장 큰 조직화 승리”라고 주장했다. 고가도로 전투(the Battle of the Overpass)에 비하면 상당히 위신이 실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간병인들은 시간당 8.15 달러 인상을 얻었다. 그러나 로버트 피치(Robert Fitch)가 지적했다시피 조직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실제 노동자들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을 보살피고 있던 생활보호대상자들이었다.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는 감독관들과 시장 후보들로 구성된 로스앤젤레스 자치주위원회가 노동조합이 “협상”할 수 있는 주체를 형성하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이후 적절한 때가 되자 실제 협상이 이루어졌다. 자격조건이 되는 1/4의 노동자들만이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선거에 투표했다. 주18)

똑같은 패턴이 일리노이에서도 반복되었다. 스텐(Stern)은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에 대한 로드 블라고제비치(Rod Blagojevich)의 지원을 얻기 위해 그에게 선거자금으로 80만 달러를 기부하고 2004년 이를 승인했다.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는 사실상 20년 동안 협상할 단체가 없는 일리노이 장기요양시설 간병인들로부터 회비를 거둬왔다.

17) Steve Early의 조직된 노동에 내포되어 있는 것(Embedded with Organized Labor, 2009), p. 221 인용.

18) Fitch (앞서 언급한 책에서)

캘리포니아에서처럼 “평 조합원들”은 주로 자녀를 돌보고 있던 이전 생활보호대상자들로 하루에 50달러를 버는데, 이는 1986년 이래로 단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었으며, 의료보장 수당도 병가나 퇴직 수당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주19)

그러나 상황은 훨씬 더 나아졌다. 민간요양원의 단체협상 대표권을 얻기 위해, 은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는 플로리다, 텍사스 그리고 특히 캘리포니아 경영진들과 함께 궁핍한 환자들의 권리를 봉쇄하는 동시,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요양원에 향후 5년간 30억 달러를 주도록 한 법안을 통과하게 하여 회사 이윤은 보장하고 환자들의 권리는 파괴했다.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는 그 후 요양원에 결합하여 요양원 거주자 권리 법안(the Nursing Home Residents Bill of Rights)을 짓밟았고 이는 요양원 내의 노인 학대를 억제하려한 활동가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노동자들을 돕고 환자 관리를 향상시키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도움을 준 대가로 요양원들은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 조직화를 막지 않는 데 동의했다. 스텐(Stern)과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는 또한 캘리포니아의 거대 의료센터인 카이저 퍼머넌트(Kaiser Permanente)와 동맹을 맺었고 뉴욕 주에서는 입법부 재정지원과 병원 패쇄 계획을 놓고 고용주들과 함께 로비를 벌였다.

스텐(Stern)과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가 고안한 이러한 전술에 대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존재했다. 한 가지 사례가 널리 알려진 2002년 10월 보스턴 잡역부 파업이었다. 보스턴 지역 11,000명의 잡역부에는 많은 라티노들이 포함되어있었는데 파업은 3일간 지속되어 향후 5년간 30% 임금인상과 일부 파트타임 잡역부들을 위한 의료보장 계약을 쟁취하며 막을 내렸다.

19) Ibid (위와 같은 책)

그러나 그 계약 하에서 가장 큰 건물들에서 일하는 파트타임 노동자 1천명만이 전액의료보험을 보장받은 반면 파업참가자 3/4가 파트타임 노동자들이었고 정규직들은 이미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 파업은 지방언론과 매사추세츠 정치, 사업 기관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성직자, 미국 상원의원 테드 케네디(Ted Kennedy)와 존 케리(John Kerry)의 지지 또한 받았다. 파업을 벌였던 노동자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이를 승리라고 선언하느라 기를 썼다.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에 반대하는 파업 지부의 한 직원은 이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파업을 ‘승리’라고 부르는 것 보며 가장 먼저 걱정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아는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이를 승리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직원에 따르면 잡역부들은 인쇄된 계약을 보고 “크게 분노”했으며 노동조합을 “배신자”라 불렀다고 한다. 향후 5년간 임금 인상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 인터네셔널은 (정규직과 일부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혜택에 대해) 무언가 성취한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기꺼이 전적으로 항복해버리고 말았다.”^{주20)}

그러나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에 도입된 스텐(Stern) 방식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2005년 7월 그가 스위니(Sweeney)의 불운한 산별노조 총연맹(AFL-CIO)에서 나온 5백만 조합원들을 앞서 언급한 새로운 연맹, 승리를 위한 변화 (Change to Win (CTW))로 이끌었을 때 일어난 폭풍 같은 불길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기반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스텐(Stern)이 2004년 UNITE의 브루스 레이너(Bruce Raynor)와 HERE의 존 빌헬름(John Wilhelm)과 함께 새로운 통합 동반자 관계(the New Unity Partnership - NUP)를 형성했을 때였다. 이 두 인물들 속에서 1960년 후반 노동계급에 대한 신좌파의 작업은 다시 한 번 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브루스 레이너(Bruce Raynor)는

20) 앞서 언급한 책, pp. 226-227

1960년대 SDS 출신으로 1973년 이후 당시 미국 섬유노동자연합(TWUA)을 위한 시민권리 보장 활동을 했으며 당시 그는 우선 코넬 대학 노사관계 스쿨(Cornell University School of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을 졸업한 상태였다. 그는 남부 섬유회사 J.P. Stevens를 조직하는 기나긴 투쟁을 통해 두드러지게 되었다. 레이너(Raynor)는 한 때 분명 “남쪽의 레닌”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남부 주 대중교통 직원노조(TWUA) 조직에 20년을 보냈다. 존 빌헬름(John Wilhelm)은 예일대를 졸업한 후 1969년 HERE와 함께 활동을 시작했으며 1984년 그곳에서 일어난 파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또한 1980년대 후반 라스베이거스 호텔과 카지노 업종 사이에서 몇 건의 조직화 승리를 이루는 데도 연루되어 있었다.

UNITE는 초기 3개의 섬유노동자조합(the Textile Workers Union of America)을 합병한 것으로, 이 합병 자체가 그 부문의 막대한 직업 손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주21)} 섬유노동자(the Textile Workers), 합병(Amalgamated)그리고 (UNITE에 합병된) 국제여성복노동조합(ILGWU) 합병에 따라 결합된 (45만 명으로 추정되는) 조합원 수는 1976년 의류섬유연합 노동조합(ACTWU) 단독 조합원 수보다도 적었다.^{주22)} 레이너(Raynor)의 UNITE와 빌헬름(Wilhelm)의

21) 이 합병은 미국 노동조합 초기에 대한 백조의 노래(백조가 죽을 때 부른다는 아름다운 노래로 최후에 일어난 혹은 하게 되는 일을 뜻한다)였다. 미국 의류노동자연합(the Amalgamated Clothing Workers of America)을 처음 30년간 이끈 것은 “노동 정치가” Sidney Hillman이었고 그는 CIO 설립을 도왔다. Amalgamated는 1976년 미국 섬유노동자조합(the Textile Workers Union of America)에 합병되어 the Amalgamated Clothing and Textile Workers Union을 형성하기 되었다. 이 합병은 그 후 1995년에 (David Dubinsky가 명성을 얻은) 국제 여성복 노동자 조합(the International Ladies' Garment Workers' Union)과의 합병으로 이어져 the Union of Needle Trades, Industrial and Textile Employees (UNITE)를 만들게 된다.

22) 참고. 위에서 언급한 Robert Fitch 저서 제 9장 “UNITE's Garment Gulag”를 보면 UNITE는 서류상 충분한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New York 저임노동사업장 계약 불이행과 관련된 많은 추문에 연루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조직되지 않은” 많은 저임노동사업장들은 더욱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었다. Fitch에 따르면 저임노동사업장은 따라서 (예를 들어 대학을 기반으로 한 저임노동사업장 반대운동 입장에서 보면) UNITE로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을 의미하게 되었다.

23) 다음 문단에 나오는 내용은 앞서 언급한 Steve Early의 저서에 크게 의지한다.

HERE는 차례로 합병되어 UNITE HERE(섬유산업 최대노동조합)를 형성했다.

2005년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승리를 위한 변화 (Change to Win (CTW))와 더불어 심화되었다.^{주23)} 2007년 이후, 즉 경쟁자 산별노조 총연맹 (AFL-CIO)가 당시 태동하고 있던 의료보장 논쟁에서 (의료보장을 모두에게 확대하되) 납부자는 단독으로 하는 single-payer(단일지급)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이후, 스텐(Stern)은 정부가 의료보장에 있어 부차적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몇 달 전 그는 악명 높은 반 노동 월마트 CEO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프로젝트인 “더 나은 의료보장 공동 캠페인 (Better Health Care Together Campaign)”을 벌이겠다고 발표했었다.^{주24)} 승리를 위한 변화 (Change to Win (CTW)) 또 다른 지부와 식품노동자연맹(UFCW)의 직원들은 조직된 노동부문 내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슈퍼마켓 종사자들 평균급여의 대략 10배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안팎으로부터 비판 역시 심화되고 있었다. 2006년 2월 매사추세츠 대학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 소속 2천명의 조합원들은 또 하나의 대규모 지부를 도입하는 데 반대하며 노동조합을 탈퇴했다.^{주25)}

스텐(Stern)은 평 조합원 투사들을 강력 탄압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전형적인 방식으로 2007년 9월 캘리

24) 사실상 어떤 면에서 이것이 기점이었다. 전형적인 SEIU의 제안은 노동조합이 인식하기에 의료보장 무계획과의 맞교환이었기 때문이었다.

25) 다음에 나오는 내용의 출처는 Labor Notes로 2005-2010년까지 다양한 부수를 참고했다.

포니아 SEIU는 20개의 지부를 3개로 합병하고 정치적 기준을 근거로 수백 명의 노동조합 직원을 해고했다. 2008년 2월, SEIU는 뉴욕 1199 의료노조의 지도자이자 좌파의 또 다른 타락 천사인 데니스 리베라(Dennis Rivera)를 파견해 푸에르토리코 교직원노조(Puerto Rican teachers' union)를 습격했다.^{주26)}

2008년 8월, 확실히 자리를 잡은 독단적인 조직화 방식과 다른 노조와의 싸움에 불법행위가 합쳐졌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스텐(Stern)이 지명한 타이론 프리먼(Tyrone Freeman)은 자신의 아내에 대한 계약에 60만 달러를 지시하고 그의 장모에게 자신의 딸과 다른 직원의 자녀들을 돌봐주는 대가로 한 달에 8천 달러를 지불한 것이 밝혀진 후 사임했다. 안넬 그라예다(Annelle Grajeda)는 지부 721의 지명된 의장이자, Stern이 자신의 독립 라이벌로 부상하고 있던 살 로셀리(Sal Rosselli-아래 참고)를 추출한 후 그의 후계자라고 밝힌 여성인데, 자신의 남자친구가 어떤 자치주의 고용인으로 있는 동안 줄곧 그에게 다양한 급여를 지불했다.

아마도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캘리포니아 간호사들이 포함한 위기였는데 이 전투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 (다시 한 번 거론하자면 환자들의 권리를 대가로 거래한) 카이저 퍼머넌트(Kaiser Permanente) 경영진에 대한 스텐(Stern)의 방식과 조합원들에 대한 평소의 상명하달식 처우에 불만을 느낀 수천 명의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 소속 간호사들은 2008년 3월 집회를 개최하며 오كل랜드에 집결해 자신들이 또 다른 조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요구했다. 이것은 그러나 살 로셀리(Sal Rosselli)의 통솔 하에 일어났고 그는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가 카이저(Kaiser)와 맺은 계약을 초기에 칭송했던 강력한 스텐(Stern) 지지자였다가 2008년까지 협의회 대표들에 의한 선거 대신 노조

26) 이 노조는 민영화와 다른 문제들에 대해 정부에 반대하는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협상 권한을 박탈당했다.

임원 직선제 선출을 요청한 인물이었다.

오클랜드 집회 직후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 폭력배들은 로셀리(Rosselli) 파벌의 한 간호사가 연설하기로 되어있었던 디트로이트 Labor Notes 회의를 공격했고 이 아수라장 속에서 회의 참가자 한 명이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 내내 앤디스턴(Andy Stern)은 고용주들과 함께 뉴욕 주 병원을 폐쇄하도록 로비하면서 책임감 있는 노조라면 아웃소싱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의료서비스 “연합”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간호사들을 공격했다. 2009년 6월 스텐(Stern)에 반대하는 개혁주의자들이 매사추세츠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지부를 점거했으며 Stern은 “재조직” 과정에서 75명의 조직가들을 해고했다. 2009년 7월 캘리포니아 간호직종 전투의 일환으로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는 카이저(Kaiser)와 결탁해 노조대표들을 제거해버렸다.

너무 많은 전선에서 불길이 일면서 2009년 3월 UNITE HERE에서 노골적인 시민전쟁이 터져 나왔다. UNITE의 브루스 레이너(Bruce Raynor)는 분통을 터뜨린 많은 조합원들을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로 효과적으로 이끌면서 Stern과 협상을 벌여 UNITE로부터 여전히 급여를 받는 동안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의 집행 부위원장이 되었다. 재정적 이해관계는 상당했다. UNITE는 아말메일티드 은행 (Amalgamated Bank- 미국의 유일한 노조 소유 은행인 통합은행)와 더불어 자산 50억 달러와 값비싼 뉴욕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스텐(Stern)과 레이너(Raynor)는 사측과의 비밀거래를 통해 노조 조직화를 허용하도록 하는 반면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포기하고 있었다. 2009년 4월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는 UNITE HERE를 해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UNITE의 통제를 받던 지역 위원회는 레이너(Raynor)의 지휘 하에서 노동조합을 떠나는 데 투표했다. 중국엔 약 1/4 가량의 조합원들이 레이너(Raynor)를 따라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유산을 남기고 앤디스턴(Andy Stern)은 2010년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의장직을 사임했으며 그 뒤를 이은 인물 메리 케이 헨리(Mary Kay Henry)는 스텐(Stern) 자신의 친밀한 인사들 중 하나로 좀 더 친절하고 상냥한 SEIU와 경쟁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울적한 이야기 끝에는, 단순한 연대기에서 한 걸음 물러서 정치적 교훈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애초에 지적했다시피, 미국 신좌파 경력 말미 약 1970년 경, 다양한 전위 그룹들은 노동계급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그룹들은 1973년 최고조에 달했던 전투적인 불법파업(당시 정점에 있던 것은 흑인들이 이끈 디트로이트 DRUM과 ELRUM 파업, 1970년 트럭운전사 전국 파업, 1972년 오하이오 로즈타운(Lordstown) 파업 그리고 1973년 여름 전력을 끊었던 흑인 투사들의 디트로이트 Dodge Main 발전소 폐쇄 등이 있었다)에 일부 고무되었고, 지미카터가 1977-78년 탄전에서 파업이 벌어진 동안 태프트-하틀리(Taft-Hartley)법을 도입하려 했을 때 이를 광산 노동조합(UMW) 평 조합원들이 거부했을 정도로 노동계급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었다. 싸움이 정점에 이르자 수천 명의 트로츠키주의자, 모택동주의자 그리고 갖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 중도파 할 것 없이 이 전환기에 블루칼라 직업을 얻어 미국 노동계급 내 좌익 “개입”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매카시즘(1950년대 미국의 극단적이고 초보수적인 반공주의 선포), 냉전 그리고 1950년대 일반적 후퇴로 인해 소수 작은 노동조합을 제외한 모든 노조에서 의식적 좌파들이 퇴출된 이후 최초의 개입이었다. 누군가는 그러한 시도의 인위성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그리고 당시에 많은 이야기가 되었던) 할 수도 있다. 이 전환기에 참여하고 있던 많은 이들이 사 실상(Stern, Raynor 그리고 Wilhelm처럼) 대학에서 떨어져 나왔던 반면 그들 중 다수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노동계급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가 수십 년 간의 일진일퇴가 시작되었던 시기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던 사람들은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도 거의 없었으며, 20년 후 노동시장을 고려해 보았을 때 1970년과 1990년경에도 여전히 구할 수 있었던 좀 더 나은 급료가 제공되는 블루칼라 직업은 많은 다른 대안들에 비해 상당히 괜찮아보였다. 대체로 미국의 이전 산업 심장부 중서부에서는 이러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거의 없었다.^{주27)} 상당한 수의 이러한 “산업가”들은 블루칼라 직업에 실증을 느끼고 노동조합 중간 관료로 통합되어 1995년 스위니(Sweeney)가 산별노조 총연맹(AFL-CIO)를 새롭게 단장하고자 했던 당시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모택동 주의자들의 자유로 가는 길 그룹-the Maoist Freedom Road group에 속해 있던 마르크스-레닌 주의자 빌 플레처(Bill Fletcher)는 잠시 동안 스위니(Sweeney)의 중추세력 중 하나였다.) 산별노조 총연맹(AFL-CIO)가 전통적으로 냉전 외교정책에 연루되었던 것을 반대하고 나서자 몇몇 주요 노조 내부에서는 1980년대 중앙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두고 큰 논란이 일게 되었다. 이들 다수는 1984년과 1988년 제시 잭슨(Jesse Jackson)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들이 애초의 정치적 책무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은 점점 더 1인2역을 하게 되어 낮에는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투사로, 밤에는 급진파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독립적 노력이든 혹은 편입된 노력이든 이러한 노력들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전후 붐이 끝나가던 시기는 분명 1970년경이었고 이 때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 최대 규모의 경제구조 개편으로 당시는 1900년 경 산업적 집약생장과 내구 소모재의 대량생산(1920년대, 1930년대)으로 결국 기술생산이 폐기된 이후였다. “불법파업”에 대한 전망은 어디에도 없었다.

27) 대단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비록 짧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주의자(the International Socialists-IS)의 성공으로 1991년 Teamsters(트럭운전자 조합) 의장 Ron Carey 선출을 도운 것으로 이러한 성공은 미국 법무부가 이 노조를 점령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마피아 영향력 제거라는 명시된 목표를 돕게 되었다. 이 복잡한 이야기는 다른 글을 통해 기술되어야겠지만 Fitch의 저서 Solidarity for Sale에 있는 Carey 관련 글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공장폐쇄, 대폭적 인원삭감, 아웃소싱, 품질 관리, 기술집약적 노동, 양보 협상, 전 지역의 탈 산업화 그리고 해외에서 더욱 새로운 공장과 방식으로 생산된 홍수처럼 밀려드는 독일과 일본 상품이 파도처럼 밀려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주28)} 1969-70년 경기후퇴와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진 1973-75 후퇴로 평 조합원 저항은 곤경에 빠지게 되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 행해진 경영진의 역공은 이후로 줄곧 일반적으로 우위를 점해왔다. 영국과 (세계 금융 센터로서 우위에 서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 미국 같은 좀 더 오래된 산업국가에서 많은 장점을 내세우며 이루어진 탈공업화된 서비스경제로의 변환은 생산적 노동력의 이러한 후퇴를 완전히 가려버렸고, 그 결과 오늘날 10%에도 못 미치는 영국 노동력만이 공업 부문에 남게 되었고 미국에서는 20%도 안 된다. 영국은 오랫동안 세계 금융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미국에 양도해왔지만 대처 시대 이후부터 영국의 지불상환능력을 유지해준 것은 바로 런던으로 유입된 순 자본이었다. 반면 미국은 세계 최대 채권자에서 1984년경 세계 최대 채무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미국 무역수지 적자는 1971년 이후 1970년 후기 경기후퇴 때문에 단지 비관적인 상태로 중지되었다가, 이후 부채를 원동력으로 한 “소비자 주도” 회복이 시작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물론, IN 제 1호에서 주장했다시피 ^{주29)} 1970년경 세계 자본주의가 자신을 재구성하고 1914-45년의 기나긴 위기로부터 회복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고 그 장벽에 부딪히게 되면서 자본의 “가치” 축적이 사회의 확대된 물질 재생산에 반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점이었다. 자본은 다시 자신의 경향성을 드러내 보이며 일제히 고도의 생산력을 통해 생산과정

28) 수백만 미국 노동자들이 경험한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그려 보려면 시카고의 예를 이용한 David Ranney의 전 세계적 결정, 지역적 충돌. 새로운 세계질서 속의 도시 생활(Global Decisions, Local Collisions. Urban Life in the New World Order 2003)를 참고하십시오. 이 저서에는 당시 공장 폐쇄를 이어 나타난 실업, 이혼, 아내 구타, 모기지 압류, 무주택, 자살 그리고 아노미(사회적 무질서) 등이 서술되어 있다.

29) N No. 1호, The Historical Moment Which Produced Us를 참고하십시오.

에서 살아있는 노동을 축출했지만 반면 자본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주30)} 이러한 절대잉여가치 생산의 확장은 1970년 이후 앤디스턴(Andy Stern)의 서비스종사자 국제노동조합(SEIU)가 조직화하려고 했던 저임금 “작은 도로” 직업이 확산된 실질적 기반이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의 저변이다. 이것이 패스트푸드 할인점, 스타벅스, 월마트, 가정부(home care attendants) 등 요컨대 1970년대 이후 3천만 직업을 추가했던 “위대한 미국 일 기계”의 실질적 기반이며, 이 직업군 대부분이 가족 재생산은 고사하고 자기 하나 먹고 살기도 부족한 임금을 받고 있다. 지난 미국 자본 축적 5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물질적 “사실”은 단일 급료로 생활하는 노동계급 가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새로운 자본축적 토대를 향한 자본의 탐색은 자연스럽게 전개된 적이 거의 없었다. 2008년 가을 분출한 폭락은 단지 40년 과정을 가속시켰을 뿐이다. 세계 축적은 팽창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찾기 위해, 미국이 패권국인 영국을 대체했던 식의 구조조정과 유사한 방식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갑판(조직) 개편하기”를 통해 새로운 최첨단 생산의 세계 분배를 반영하려 했다. 이러한 세계분배가 더 이상 뉴욕을 의심의 여지없는 금융센터로, 미국 달러의 특별 지위도, 그리고 미국이 1945년 이후 패권을 행사하던 다른 국제기관(IMF, World Bank, WTO)들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조직은 필수적으로 지정학을 거치기 때문에 이는 NATO와 110개국에 존재하는 미국 군대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처럼 기관들을 속고하게 되면 이는 결국 계급 간 역학으로 압축되기 마련이다. 1914-1945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본은 오로지 자신이 이전 “30년 전쟁” 위기의 시대에 이용했던 것과 똑같은 폭력과 파괴를 통해서만 이러한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다. 전쟁과 점점 더 권위적인 정권은, “테러에 대한 전쟁”과 이미 준비를 마친 그 어느 때보다 가속화된 온라인 전체주의(e-totalitarianism)를 통해 증가되어, 마치 어떤 새로운 자본축적 국면이든 거쳐 가는 중간 기착지가 된 듯하다.

우리는 이제 위에서 그려보았듯이, 이러한 더 큰 과정 속에서 계급투쟁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만 한다. 자본은 지적했다시피 결국은 1945년 과거 세계적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패권을 확립하여 2차 세계대전의 패허 위에 그 패권국의 기관을 설립했으며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노동당은 물론 이 당의 지도를 받던 노동조합의 지원을 통해 가능했던 도처에 있는 노동계급을 패배시키고 억제했다. 세계 자본계급은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행동한다.” 지역주의 관점이 어떤 혼란을 주든 상관없이, 좌파 견해가 그것을 대체하기 바라고 있을 때 말이다. 1914년과 2차 세계대전 말 사이 패했던 것처럼 또 패한다면, 세계 역사는 그 구체적 결과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어떤 새로운 자본주의 순환에서든 그 시작은 또 다른 “1945”라 기록할 것이다. ^{주31)} 자본주의자들은 1917-1918년 무엇이 일어났었는지 완전히 인식한 상태에서 2차 세계대전을 수행했고, 완벽한 의지로 그들이 처분해야 할 모든 살인 수단^{주32)}을 동원해 자신들이 통제력을 상실한 듯했던 그 짧은 순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애초에 기술했다시피, 전체 노동계급이 노동조합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1917-1920년 세계 산업 노동자 동맹(IWW)에 쏟아져 내린 살인적이고 린치를 가하는 폭도들을 동원했던 탄압을 떠올려보면 우리는 미국 자본주의자들이 막상 일이 닳치면 어떤 만만찮은 반대세력에 대해서든 무엇을 하려 할지 예상할 수 있으며, 오늘날의

31) 유일하게 확실한 예측은 미국의 상대적 하락에 대한 인식을 형식화하는 것뿐이다.

32) 연합군은 전쟁 생산의 중심축을 마비시키기 위해 공장들 대신 독일과 이탈리아 노동계급 지역을 폭격했다. 참고. 역사가 Tim Mason의 저서, 나치 정권 내 노동계급 저항의 두려움에 대한 특히 나치즘, 파시즘 그리고 노동계급(1995).

30) 칼 마르크스, Grundrisse(영어판, 1973), p. 706. “자본 자체는 움직이는 모순이다. 노동시간을 최소화시키려고 압박을 가하지만 반면에 노동시간을 부의 유일한 수단과 원천으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노동조합들은 부드럽게 말하자면 세계 산업 노동자 동맹(IWW)와 전혀 다르고 분명 심각한 반대세력도 아니다. 미국 주류 노조들은 두 번의 제국주의 세계대전에서 정부가 강제한 노사위원회에 복무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줄을 섰다.³³⁾ 조금 더 현 시대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미국 노동조합이 9/11 직후 온순하고 애국심이 많으며 ‘우리 모두 이 속에서 하나’라는 식으로 반응했던 것을 회상하기만 하면 된다. 참고로 9월 11일은 평범한 미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제국주의의 손에 의해 무엇을 경험해왔는지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던 시대의 천 배나 더 경험했던 날이었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해볼 때, 그리고 터키에서 파키스탄에 이르는 중동과 남아시아에 대한 미국 정책이 빠른 속도로 실패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이란,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한국 문제를 놓고 그리고 중국 남해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등 미국이 점점 더 수렁에 빠져가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미국 노동조합이 차후 심각한 (그리고/혹은 날조된) 전쟁 공포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상상만큼은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조금 앞서있다. 2010년의 그러한 종말론적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그 역사적 단계, 특히 환경위기와 나란히 볼 때 사실상 종말론적인) 관점은 다소 셸링(Schelling)의 “모든 소들이 검은 밤”³⁴⁾을 닮았다. 말 못하는 전체 속에서 모든 구체적인 지금의 현실 (예, Andy Stern의 부상과 몰락 그리고 노조탈퇴)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론하는 과정, 즉 우리가 이전에 “느린 불식작”³⁵⁾이 그 특징이라고 했던 과정은 수년 아마도

수십년 동안 지속되었을 것이며, 조만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혹은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세력집단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특히 그러하다. 환자가 죽어간다고 사망 일자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그 과정은 특히 유동적이고 세계 노동계급이 무언가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그 과정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IN 제 1호는 성공적인 세계 혁명을 통해 “가치 생산”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한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요를 설명했다.³⁶⁾ 그러한 프로그램은 분명,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다만 이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재생산을 위한 필요조건들로부터 그리고 그 필요조건들과 현재 진행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역행주의 공격 사이의 간격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한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다. 문제는 분명 이 프로그램을 오늘날의 투쟁에 혹은 투쟁의 부재에 의미 있게 연결하는 것이다.

최근 세계 파노라마는 기껏해야 혼재되어 있다. IN 최신호에서 우리는 중국의 최근 파업, 방글라데시의 지속적인 파업 그리고 지난 봄 터키의 인상적인 TEKEK 파업에 대한 기사를 제공한다. 십만 명의 그리스인들이 EU의 초긴축 정책에 반대해 5월 거리에 나섰고 그리스 노동자총연맹 수장 이아니스 파나고푸로스(Yiannis Panagopoulos)에게 그가 충분히 받아 마땅한 계란 세례와 매질을 퍼부었다.³⁷⁾ 미국의 경우 지금 당장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것 같지만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1960년대와 7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난 투쟁은 분명 노동현장과 생산현장을 넘어서는 많은 요소들을 결합하고 있었으며³⁸⁾ 사실상 종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을 무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33)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2차 세계대전 동안 이러한 계급 협력 이 누구의 반대도 받지 않고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특히 AFL, CIO와 CPUSA가 전시 “무파업” 서약에 서명한 후 그랬다. 참고. Marty Glaberman 저서 전시파업, 디트로이트, 1980(Wartime Strikes, Detroit)

34) GFW Hegel은 당대의 Schelling이 현실을 (무조건 환영해야 하는) 전체로서만 생각할 뿐 전개되고 있는 현실의 구체성인 다양한 “순간”이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말하자면 아마도 오늘날의 ‘새로운 시대’) 전체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전체로서 바라보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35) IN 제 1 호, The Historical Moment....

36) N 제 1 호, The Historical Moment....

37) Panagopoulos는 그리스 국회 앞에서 폭력 경찰에게 둘러싸인 성난 군중을 가라앉히려 했다. 계란 세례는 즉시 시작되었고 이후 Panagopoulos는 군중들에게 물매를 맞았고 경찰 저지선 뒤로 보호를 요청하며 도망쳐야 했다.

38) 마르크스 자본론 제 1권의 핵심: “증각적 생산과정”



미국의 경우만 보면, 늘어나는 불법 파업에 더해, 우리는 흑인운동, 반전과 GI 운동, (주로 중산층의) 청년과 학생 운동, 라티노 (시카고와 푸에르토리코) 운동, 감옥운동, 여성운동 그리고 게이운동의 다른 국면을 떠올리게 된다. 어떤 상황은 한 분야의 투쟁성이 다른 분야의 투쟁성을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 영역 간의 경계를 허물어 모두 함께 점점 더 눈에 보이는 전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이와 유사한 전체가 드러난 윤곽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다.

우리의 현재와 1960대를 구별하게 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에서 당시 초기에 일어난 저항들 ^{주39)}은 대부분 중도좌파들이 세운 기관들에 대한 저항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인데, 당시 중도좌파들은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케인즈/사회민주주의 사회복지제도는 노동조합이든 모두 이 좌파에 속했다. 그 시기 저항의 특징은 전후 서구에 케인즈 학설이 정착되면서 만들어진 관료주의적이고 “개혁적인” 기관들(정당, 노동조합)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선수를 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나의 전형적인 예는 아마도 1973년 미국자동차노동조합(UAW)에서 일어난 엄청난 소동으로, 당시는 노동조합 관료들이 화려하게 “주4일 근무”를 명기한 새로운 계약을 발표했을

39) 우리가 그 시기 제3세계에서 일어난 투쟁과 저항을 잊은 것은 아니지만 수적인 면에서 명백한 프롤레타리아 특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즉 많은 국가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러한 파업들이 보여준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때였다. 이미 대규모로 자주 결근하던 공장 활동가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주 4일 근무라고? 우리는 이미 주 4일 근무한다!”

오늘날 “개혁”이 자본주의자 자신의 표어가 되어, “고통스러운 조정” 과정에서 “집세 구하는 사람들”(월스트리트 은행가들과 그들의 보너스는, 물론, “집세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결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에게 부여했던 잔뜩 부풀어 오른 권한을 회수하여 결코 오지 않는 회복에 길을 내주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이 때, ^{주40)} 전 세계적인 투쟁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그리고 주로 방어적인 성격을 띠어왔다. ^{주41)} 유럽 지배층은 사회복지제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 지배층처럼) 살라미 전술(salami tactics)을 구사하며, 2008년 후기 폭락이 복지를 줄이는 데 가장 유용한 뼈기를 박아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들이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천억 달러를 썼던 바로 그 순간에 말이다.

우리는 “투쟁이 확산될” 다음 번 위기에 우리가 존재하리라 바랄 수는 없다. 1929년 붕괴와 1934년 미국 최초 대파업 사이의 몇 년을 바라보면, 거대한 침묵뿐 아니라 가압류, 임대 당사자에 저항한 전투 혹은 1931년 워싱턴에서 벌어진 보너스 행진(the Bonus March) ^{주42)}을 볼 수 있다.

40) 미국의 극심한 빈부의 격차로부터 1920년대의 성과 너머로 주의를 전환하면서 벌어진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선전의 전형적인 예는 워싱턴 DC에 있는 Peter G. Peterson 국제 경제 기관(the Peter G.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으로, 수십 년간 이 기관은 미국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을 줄여야한다고 열심히 선전해왔다. 이 기관은 “Goebbels(나치 독일의 선전국 장관) 원칙”의 최신판 좋은 실례로 이 원칙에 따르면 당시 않은 거짓말도 충분히 자주 반복되면 일반적인 인식 속으로 가라앉는다.

41) 참고. IN 제 1호에 실린 Lance Carter의 짧은 기사와 최신호에 실린 최근의 중국파업에 관한 좀 더 긴 기사. 중국 내 이 파업들이 공격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파업들은, 몇 년 거슬러 올라가 좀 더 오래된 “국영기업”(SOEs)의 공장폐쇄, 경영진이 연금기금을 빼돌려 개인 자산으로 만든 사건에 저항해 복동부의 “녹슨 사발(rust bowl)”에서 일어난 많은 파업들과 동시에 고려되어야만 한다. 중국에서도 30년 10+% 성장 이후 임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해왔다.

42) 수만 명의 1차 세계대전 베테랑들이 워싱턴 DC에 결집해 그들에게 빚진 연방정부 자금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수개월 간 집단적으로 천막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결국 맥아더(Douglas MacArthur)와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장군의 지휘를 받은 군대에 의해 해산되고 말았다.

대체로 적막한 상황에서, 그들은 아마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작은 조짐들이었던 것 같다. 1934년의 대파업은 샌프란시스코, 미니애폴리스, 톨레도 그리고 남부 섬유산업 도처에서 일어나 1936-37년 철강 파업과 Flint 자동차 연좌농성까지 곧장 연결되었는데, 당시 이 파업이 일어났을 때는 대공황의 깊은 수렁에서 어느 정도 호전되었을 때였다. (더 깊게는 정치적인 차원의 희망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 희망은 아마도 제자리에 놓여있질 못하다가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 착수되면서 생겨났다 ^{주43)} 근 40년간 미국과 유럽이 안고 있던 문제는 전후 붐이 정점에 달했을 당시 노동자들이 차지했던 우위를 다시 확보할 수 있을 만한 경기 호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934년 자본주의는, 2010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자본의 진정한 목표인 가치팽창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팽창된 물질 재생산에 배치되는 시대(1914년 경)로 들어섰다. ^{주44)}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오늘날의 세계적 경제위기는 1930년대보다 더욱 심각하기 마련이고, 현재 진행 중인 환경재앙 ^{주45)} 이 1930년대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직설적으로 말해 보자. 공급이 전체로서 진전하고 심지어 40년 넘게 잃었던 기반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자들로부터 생산설비를 빼앗아야만 한다. “개혁”은 수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 자유 시장을 지지하는 표

43) 심지어 1930년대와 오늘날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루즈벨트 첫 임기 당시 대중 투쟁과 오바마 첫 임기 2년 동안 상대적으로 침묵한 대부분의 좌파를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것이 1936년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거둔 인민전선(the Popular Front)의 선거 승리로 스페인의 경우는 혁명적 위기였고 프랑스의 경우는 대중의 공장점거였다. 45년 후 Felipe Gonzalez(1982-1996년 스페인 수상)와 Francois Mitterand(1981-1995 프랑스 대통령)이 당선된 후 15년 간 침묵이 각 양국에서 이어지다가 여기에 종지부를 찍었던 것이 몇 건의 방어진 임시변통 투쟁이었다. 이 두 시기 사이에 “권력을 쥔 좌파”라는 환상은, 힘든 경험을 거쳐 크게 침식되고 있었다.

44) 참고. IN 제 1호, The Historical Moment Which Produced Us는 이러한 이론적 틀을 풀어서 해석하고 있다.

45) 이 문제에 관해서는 BP 기름유출 사건에 대한 John Garvey의 기사를 참고하십시오. 겉표 만에 입힌 셀 수 없는 피해에 덧붙여 2010년은 지금까지 세계 도처에 나타난 역대 최고로 더운 여름, 그린란드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거대한 얼음 섬, 가뭄으로 심각하게 줄어든 러시아 밀 수확, 파키스탄과 중국의 대규모 홍수 등을 목도한 해이다.

어로 좌파에 위치해 있는 가능한 개혁주의는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미국 노동운동의 많은 좌익 ^{주46)} 들은, 스위니(Sweeney) 낭패로 막을 내렸 다시피, 그들이 떠나 버렸던 게임에서 자본주의자들의 관심을 끌기위해 애쓰는 데 연루되어왔다. 이 좌파들 대부분은 2008년 가을 버락 오바마의 당선을 응원하는 것 말고는 더 나은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었지만, 오바마는 월스트리트로부터 그의 “공화당” 적수 메케인보다도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았고, 당시 위기를 다스리기 위해, 팀 가이트너(Tim Geithner),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같은 인물들, 즉 노동계급에 대한 다양한 범주의 모든 베테랑들을 기용했다. ^{주47)}

자본가들로부터 생산설비를 빼앗는다는 것은 사회혁명을 의미하며 더욱이 시작부터 국제적인 혁명을 뜻한다. 세계적 차원의 “실질 경제”는, 그리고 미국에서 유난히도, 지난 수십 년간 자본축적으로 통해 너무나 왜곡되어왔기 때문에 사회 재구성을 위한 프로그램만이, “사용가치”를 기초로 세상을 재건하기 위해 지금의 “현실” 가운데 어느 정도를 제거할 것인지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서 논의 ^{주48)} 한 바 있다.

우리는 이를 말할 때 거의, 크든 작든 벌어지는 현재의 투쟁을 무시하는 절대주의 자세를 취하지 않으며 “수용자들을 수용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지도 않는다. 마르크스가 1843년 루게(Ruge)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에 썼다시피,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 왜 투쟁이 벌어지는지 말할 뿐이고 의식은 이 세상이 반드시 획득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다. 심지어 스스로 원

46) 반대파의 한 부류는 아마도 디트로이트를 기반으로 한 월간지 Labor Notes에 가장 잘 나타나있다.

47) Geithner는 뉴욕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경험을 쌓던 중 곧바로 발탁되었고, IMF의 Summers는 빌 클린턴 시절 재무부 차관으로 1997-98년 아시아 폭락 당시 IMF의 가혹한 긴급구제(사실상 아시아 자산에 대한 미국 자본의 기업담보차입매수)를 수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아시아 강국들을 엄하게 질책했으며, 힐러리 클린턴은 1993년 의료보장 완전실패(단독 납부자가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NAFTA와 사회복지 폐지 같은 1990년대의 주목할 만한 성과에 연루되어 있었다.

48) IN 제 1호, The Historical Moment... 를 보시오.

치 않는다할지라도 말이다.”⁴⁹⁾ 우리는 2003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지하철 노동자들 같은 예를 든다. 당시 그들은 2000년 정리해고를 위한 경영자 계획에 맞서 전체 6시간 노동과 더욱 단축된 교대근무로 시스템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새로이 2천명을 고용하도록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그들은 승리했다.

모든 방어적 투쟁, 아마도 심지어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전환될 수는 없다. 대부분은 패배할 것이다. 지난 35-40년간 대부분의 투쟁이 (최소한 미국에서) 패배로 끝났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적어도 지금의 경우, 우리의 임무는 노동자들에게 세계 도처에서 진행 중인 투쟁들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여 계급에 대한 자각을 국제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출하고 이기거나 지는 그러한 투쟁들의 구체성을 넘어, 세계자본의 역학과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본에 마침표를 찍을 것인지 혹은 (이미 상당히 눈에 보이는) 그 결과로 고통을 받을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거론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점이다.



49) 마르크스가 언급한 전체 내용은 이렇다:

그런고로 우리가 정치를 비판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따라서 실제 투쟁 즉 비평의 기점에 나서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비판과 정치인들의 비판을 동일시하는 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경우 우리는 새로운 원리를 지닌 교조적 방식으로 세상을 마주할 수는 없다. 즉 다음과 같이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진실이 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라!” 우리는 세상 스스로의 원리로부터 그 세상을 위한 새로운 원리를 발전시킨다. 우리는 세상에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는다. “당신의 투쟁을 멈추라, 그들은 어리석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에게 진정한 투쟁 슬로건을 줄 것이다.” 우리는 단지 세상에 그것이 정말로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의식은 이 세상이 반드시 획득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다. 심지어 스스로 원치 않는다할지라도 말이다.

자본은 고기를 가는 기구이고 우리는 그 속에 있다. 이 과정의 티핑 포인트(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여, 이제 작은 변화가 하나만 더 일어나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단계, 역자 주)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다. 마치 프랑스 혁명을 이끈 빵 폭동이나 러시아 황제 전복을 이끈 여성의 날 시위 혹은 좀 더 가까이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을 이끈 로사 파크스(Rosa Parks)의 몸짓처럼 말이다. 노동자 투쟁이 의미 있게 전진한다는 것은 전 계급적 조직을 구성한다는 뜻이다. 그러한 전망을 지닌 채 어떻게든 노동조합에 살아남아 있는 이들이라면, 가능한 모든 곳에서, (예를 들면) 부에노스아이레스 노동자들의 경우처럼, 실업자들을 포괄하기 위한 투쟁 확대를 자신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선진 활동가들, 즉 상황의 필요에 따라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항상 노동조합을 넘어선 그리고 전 계급적 조직으로 들어서겠다는 전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⁵⁰⁾ (감소추세인) 협동조합주의 결과물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계급부문의 비참한 게토화(ghettoization)는, 노동법과 수십 년의 반 노동자 법으로 손발이 묶여있어 심지어는 의미 있는 연대에서 서로 도움을 줄 수조차 없으며, 적법성 위반에 대한 절망적인 (거의 두드러진 예외가 없는)⁵¹⁾ 거절은 말할 것도 없으니, 이제 이러한 상황은 끝이 나야 한다. 비조합원들에 대한 이러한 조용한 무관심뿐 아니라, 어제까지만 해도 조합원이었던 실업 노동자들에 대한 무관심 역시 끝나야 한다. 이러한 대부분의 협동조합주의 형성 자체가, 그저 거의 잊혀진 것처럼 보일 뿐, 그 법을 기꺼이 깨고자 한 노동자들이 수십 년 전에 건설했던 것이다.

특히 미국 즉 노동력의 88%가 노동조합에 속해있지

50) 1970년대 이후 위기에서 이 투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훌륭한 예를 알고 싶다면 Scott McGuire와의 인터뷰를 담은 노동조합을 넘어선 계급투쟁(Class Struggle Beyond Unions).

51) 우리는 여기에 2005년 12월 뉴욕시 운송 노동자(TWU)의 3일간 파업을 적는다. 이 파업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파업을 금한 뉴욕시의 악명 높은 테일러 법(Taylor Law)에 대한 저항의 표시였다.

않고, 20%가 실직상태이거나 혹은 할 일이 충분치 않아 매일매일 점점 더 많은 집 없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으며, 거의 노동조합원에 맞먹을 정도의 많은 프롤레타리아 혹은 후보 프롤레타리아가 감옥에 있는 (그리고 결국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경찰과 감옥 직원들인) ^{주52)} 국가에서, “노동조합을 혁명 전략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발상 즉 혁명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차

52) IN 제 1호, John Garvey의 기사 “노동자의 진보? 철광산에서 철봉으로(Workers’ Progress? From Iron Mines to Iron Bars)”를 참고하십시오. 펜실베이니아 주 AFL-CIO가 사형수 Mumia abu-Jamal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려하자 캘리포니아 AFSCME에 조직되어 있는 경찰과 감옥 직원들이 이를 막은 사건이 발생했다. AFSCME는 비슷한 식으로 자신들의 오락거리로 죄수들이 수퍼맥스(보안이 매우 높은 감옥)에서 검투를 하게 했던 감옥 경비 직원들에 대한 어떤 처벌에도 반대했다. 가장 최근 들어, 캘리포니아 노동조합은 Oscar Grant를 냉혹하게 죽인 지하철 경찰이 “우발적 살인”으로 기소되었을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지한다”는 식의 오늘날 아직까지도 다양한 그리고 잡다한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선전하는 발상들은 우스개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점점 더 암울한 상황은, 1970년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해오면서, 상당한 수의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스텐(Stern)과 그의 방식이 아니면, 스텐(Stern)을 낳은 “노동조합 갱신”이라는 파멸에 이르는 길에 놓인 초기 단계에 공감하게 했다. 이 비탈길에는 더 나아갈 곳이 없다.

IN의 역할은 생각이 비슷한 다른 사람들과 공조하여 지금의 수세적인 후퇴를 공격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이미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단계를 지나도록 그 공격을 밀어붙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세계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 일파만파 준비3호 -